

1992. 4.29 LA 폭동 자료

한국일보 Los Angeles(LA) 판

Prepared by Eui-Young Yu

Professor Emeritu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Director, Korean American Coalition - Census Information Center

1989년 11월

21일: 40여명의 흑인들 LA 슬로우슨 한인소유 스와밋 입구에서 시위 - 한 달 지난 옷 교환 시비로 촉발 인종차별 항의 (사진)

1989년 12월

27일: 한인비즈니스업주들이 불우한 흑인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 (사진)

1990년 3월

14일: 볼티모어시, 주민진정 따라 흑인주민과 잦은 마찰 한인업소 폐쇄 명령

1990년 5월

13일: 뉴욕 한 흑인 분쟁 타결국면, 시장 직접개입의사 밝혀, 흑인들에게 불 매 중단토록 경고, 시 산하에 편견방지전담반 설치

13일: 흑인들 뉴욕청과상 불매운동 찬물 - 시위중지명령 지방법원, 최종판결 까지 3주간

15일: 한인청과상 앞에서 4개월 째 계속하고 있는 뉴욕 브루클린 처치애비뉴 의 흑인시위 (사진)

18일: NYT 보도 - 흑인 도둑 취급등 푸대접에 분노 - 브루클린 한흑분쟁 불친절이 기폭, 거스름돈 계산대에 놓고 영수증도 제대로 안줘, 이방 인은 번창, 자신들 비즈니스 없어 불만도

22일: 청과상사태 다시 악화 3백명 격렬 시위 - 뉴욕 처치애비뉴 한인업소 기물까지 파괴 - 경찰 5백명 배치

22일: 브루클린 사태로 본 어제와 오늘 시리즈 (1): “인종분쟁 대책없나” 레 드애플 앞에서 흑인들 “저 상점이 문 닫을 때까지” 외쳐, “한인 과일 장사들 돈만 안다” 흑인들 분노, “사과 한 개 팔아야 6센트 이익” 청 과상 핏발

23일: 브루클린 한인 청과상 사건일지: 1월18일 한국인 가게 안에 들어온 아 이티게 흑인여성 지스레인 페리사인트(46)가 물건값이 3달러임에도 불구하고 2달러만 내겠다고 우기면서 시작된 물건값 분쟁이 장장 4개 월이 지나도록 계속 증폭되고 있다.

25일: 한인청과상에 대한 흑인들의 불매운동이 수개월 째 계속되는 등 최근 뉴욕시의 인종갈등문제가 극한상황으로 치달고 있는 가운데 데이빗

딘킨스 뉴욕시장의 인종화합호소에 호응, 여러 인종으로 구성된 시민 들
이 22일 밤 뉴욕 요한 성당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1990년 9월

20일: 뉴욕한인 1만여 명 청과상 보이콧 규탄

1990년 10월

13일: 한흑커뮤니티간에 이해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만찬간담회
가 11일 LA 다운타운 할튼호텔에서 양 커뮤니티 관계자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1991년 3월

18일: 10대 흑인 소녀 마켓서 금전요구 주먹질 - 한인여주인 두순자씨가
총 쏘 사망 (16일 상오 사우스 LA 엠파이어마켓)

18일: 한인마켓 흑인소녀 총격사건 커뮤니티차원 노력필요

21일: 한 흑 지도자 16명 흑인소녀 총격사건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22일: 흑인 1백50명 두씨 엠파이어마켓 앞서 시위 - 물건 사지 말자 구호

23일: 한인회, 교민회 엠파이어마켓사건 진화대책회의

24일: 흑인 1백여명 한인가게 앞서 병 던지며 과격시위 - 와츠마켓 주인
경찰보호속 귀가

24일: 브래들리시장 흑인소녀 총격사건 중재 나서 - 한 흑 합작사업
적극추진

1991년 5월

27일: 뉴욕 처치애베뉴 사태일지

1991년 6월

6일: 4일 사우스LA 박태삼씨 가게(존스마켓) 흑인강도 살해 사건 미
방송들 제2 두씨 사건 연결 냄새 - 경찰선 정당방위 수사

19일: AP, 한인리커 현주소 특집보도, 샌버나디노에서 한인 미니마켓에 침
입 한 흑인 4인조 강도 중 2명을 주인이 사살, 한인은 봉 불식계기, 지난 한
달 동안 한인 3명이 강도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어, 미국내 한인 소유 일반
소매 잡화점 총 1만7천 여 개소에 달해

1991년 7월

5일: 끝까지 가게를 지키겠습니다 (박태삼)

10일: 박태삼씨 돕기 모금창구 KYC로 단일화

31일: 한인마켓 흑인불매시위 15일째 - 존스마켓

1991년 8월

16일: 존스마켓 인근 한인상인 모두 나가라 - 흑인모슬렘교도 불매시위

1992년 3월

18일: 할린즈양 가족 두씨집 앞 시위 - 1주기 맞아 1천만불 보상소송

28일: 한인상인 - 흑 히스파닉 10 여 개 단체 참가 민 관 합동 인종화합
잔치, 28일 커뮤니티 청소, 여흥 즐기며 친선도모, 8지구 시의원
77경찰서 등 서 재정지원

1992년 4월

7일: 흑인고용적극 1백여 명 선정 - 한미식품상협 이달 중

14일: 한국노인회는 14일 하오 두순자씨 재판을 담당했던 조이스 칼린

판사에게 선거 지원금 2천1백90달러를 전달했다.

22일: 가주고등법원은 21일 엠파이어마켓 사건의 피고 두순자씨에 대한 1심 형량에 이의를 제기한 검찰소송을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조이스 칼린 판사가 두씨에게 선고했던 집행유예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함으로써 두씨 사건은 일단락 됐다.

24일: 두순자씨는 21일 검사측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 법정판결은 끝났다는 홀가분한 기분과 함께 지금까지 자신을 믿고 도와준 한인 커뮤니티의 뜨거운 관심이 먼저 떠올랐다고 말했다.

두씨는 지난 91년3월 당시 15세였던 할린즈양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총으로 살해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서 5년 집행유예를 언도 받았지만 검찰 측에서 이에 불복해 항소, 지금까지 법정 소송을 벌여 오다가 21일 검찰측이 제기한 항소의 기각으로 일단락 된 것이다.

두씨는 커뮤니티 봉사형 4백시간을 최근 마쳤다.

26일: 지난 13일 브루클린 폴턴스트리트 한인청과상 베스트 푸룻 팰리스에서 흑인 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흑인보호단체 (African American Protection Agency)가 16일에는 처치 애비뉴 박만호씨의 가게 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21일 3010 처치 애비뉴 한인소유 청과상 앞에서 흑인 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한 흑간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30일: 29일 로드니 킹 사건 관련 LA 경찰관 4명에게 심리무효 또는 무죄판결, 놀만다-폴로렌스 리커스토어 주유소 오토샵 약탈 방화, 경찰 사태 관망 출동지연, 무법천지, 곳곳 불길, 방화 및 약탈 급확산

30일: 톰 브래들리 LA시장은 29일 하오 킹 사건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배심원 평결은 어떠한 언어수단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분별한 것이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LAPD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는 재판을 받았던 4명의 경찰관을 즉시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흑인들에게 폭력이 아닌 평화로운 방법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92년 5월

1일: 4월29일 로드니 킹 사건연루 백인경찰관 4명 무죄판결 폭동발생, 확산, 방화, 약탈, 주 방위군 투입, 13명 사망, 192명 부상

1일: 폭동배경 로드니 킹 사건 - 한 시민이 비디오 촬영공개로 파문

1일: 로드니 킹 사건일지

1일: 로드니 킹 구타사건에서 한가지부문에서만 심리미결선언을 받고 다른 죄목에서는 무죄가 된 로렌스 파웰 경찰관이 배심원 평결 후

기자회견에서 미소짓고 있다. (사진: 시미밸리-AP)

1일: 로드니 킹의 변호사 스티브 레만은 29일 배심원평결에 대해 이 사회가 경찰의 잔인성을 허용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비난하고 연방법원에 민권소송과 LA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만 변호사는 12명의 백인배심원이 1명의 흑인을 폭행한 4명의

경찰관에게 유죄를 인정치 않으려는 것이라고 격분하고 소송을 통

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1일 : 개처럼 패고도 무죄라니 -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2명의 흑인여성이
시미밸리 법정 앞에서 무죄평결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사진:
시미밸리-AP)

1일 : 시위대들이 LAPD 본부 앞에서 성조기를 태우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Los Angeles-AP)

1일 : 불타는 경찰초소 - 다운타운 LAPD 본부 옆에 있는 경찰초소를 성난
군중들이 불태우고 있다.

1일 : Los Angeles Times 본사 정문의 깨진 유리를 피해 여기자가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다. (Los Angeles-AP)

1일 : 불타는 한인업소 - 톰스리커 (사진)

1일 : 한 한인여인이 불에 탄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1일 :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인단체장들로 한인피해 신고접수 및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 30일

1일 : 한인타운을 지킨다는 기치를 내건 한인청년단 등 30여명의 자체
방법대원들이 올림픽가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원들이 흑인차량에 충격을 가해 흑인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2일 : 킹 구타경찰 무죄평결 시민반응 - 흑 백인 구분 없이 경악, 충격
“이성이 인간과 짐승 중간만 돼도 이 같은 판결은 없었을 것”

2일 : LA 한국총영사관 폭동사태와 관련 1일 잠정폐쇄 조치 - 현지경찰의
권고에 따라

2일 : 1일 노대통령, 교포 안전보장 모든 조치 강구, 관계기관 지시
(서울-AP)

2일 : 약탈, 방화 아수라장 - 흑인폭동 스케치

2일 : 스와밋 20 여 곳 등 쏙발, 수천만불 피해

2일 : 3가와 카타리나 부근 한인운영 남촌식당이 주위 옷가게들과 함께 불
에 탔다. (사진)

2일 : 6가와 알레산드리아 샵핑센터의 한인 상인들이 불에 거스른 업소 앞
에 모여 한숨을 쉬고 있다.

2일 : 웨스턴과 11가 한인 샵핑센터가 불에 타 양상한 골조만 들어내고
있다. (사진)

2일 : 버몬트와 1가 북서쪽 샵핑몰에 위치한 한국비디오가 폭도들의
난입으로 유리창이 대파됐다. (사진)

2일 : 버몬트와 1가 한인운영 사진관의 천장이 불에 타 날아간 채 양상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사진)

2일 : 3번이나 폭도들에게 피습을 당했던 코스모스전자가 상점 정면을 나
무 판으로 막고 있다.

2일 : 폐허로 변한 코리아타운, 교포들 모든 것 다 잃었다. 낄낄고 눈물,
한인은행들도 곳곳서 피습

2일 : 피코와 림포 소재 피코스와밋의 한인상인이 업소 접근을 막는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2일 : 사우스 LA서 금은방경영 63세 박한경씨, 귀중품 금고 속에 넣었던만

불까지 질러 녹아버려 허무

2일 : 코리아타운 내 한인업주들 30일 하오 무장을 갖추고 업소 보호에 나서

2일 : 폭동진압경찰이 1가와 버몬트플라자를 지키던 한인청년단원들이
폭도들을 향해 공포를 쏘자 사격정지명령을 내리고 있다. (사진)

2일 : 해병전우회 자경대원 박승환씨 말: “해병전우회의 소집령에 따라 옛
전우 38명이 월남전 참전경험을 살려 타운을 지키기 위해 팔장을

걸어붙이고 나섰다.” “베니스에 있는 김스전기 창고를 지키기 위해
출동, 폭도들과 격전을 벌렸던 일을 잊을 수 없다.” “충격전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는 30일 하오 3시께 상황실을 월셔타워호텔
로 옮겨 교민들의 요청에 따라 출동해 폭도들과 싸웠다.” “재향군인회, 해
병전우회, 한인청년단이 뭉쳐 새벽 2시까지 타운 요소 요소에서

한인들의 재산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박씨는 이번 자경대

활동을 하면서 하 재향군인회장이 부상을 입어 김스전기 창고를

사수하지 못하고 후퇴한 일과 경찰이 폭도로 오인 자경대원의 무장
을 해제한 일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2일 : 가주마켓 종업원들이 약탈자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옥상에서 총
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다(사진: Los Angeles-AP).

2일 : 첫 한인 사망 - 3가와 호바트에 위치한 원산면옥 옥상서 총격, 폭도로
오인, 2명은 중상, 병원으로 이송, 경찰 한인 용의자 수색했으나 못 찾아

2일 : 한 한인여인이 폭도들에 의해 크렌셔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가 전소돼
울음을 터뜨리자 이웃의 흑인이 위로하고 있다(사진: Los Angeles-AP).

2일 : 한인업주들 약탈된 상점청소 (사진)

2일 : 폭동진압경찰 늑장출동, 브래들리-게이츠 불화 탓, 시의회. 시민들
비 난 고조

2일 : LA, 상황, 아틀랜타 통금 발포령

2일 : LA 일원 통행금지, 치안당국 검문검색 강화, LA 시 당국에 따르면
30 일 하오 11시 현재 사망 24명, 부상 9백50명 집계, 화재 1천1백84건 보
고

2일 : 부시, 연방군 파견, 4천명

2일 : 30일 주 방위군 수천 명 코리아타운에 투입

2일 : 폭도에 할린 내 동포 돕자 - 생계 잃은 한인들에 성금 보냅시다 -

생필품도 접수 - 한국일보, KTAN, 라디오한국, KAC, KYCC, 동
양 선교교회, 영락교회 주관 (사고).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1일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위원회(위원장 유의영)가 발족되어 긴급
구호 활동이 시작되었다.

2일 : 5백36명의 백인과 3백19명의 흑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30일자 여론조사에서 흑인의 81%, 백인의 36%가 미국의
사법제도는 흑인들에게 불리하다 는 의견을 제시했다.

3일 : 흑인폭동이후 처음으로 사망한 한인은 한인들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간 미국출생 한인 <자경대원> 에드워드 이 (18세)씨로 밝혀졌다.

3일 : 버몬과 8가에 있는 코스모스전자는 29일 수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약

탈 당해 앞문을 모두 나무판자로 가로막았으나 30일 또다시 중남미계 들이 나무판자를 뜯어내곤 트럭까지 동원 전자제품을 약탈했다.

3일 : 중무장한 주 방위군 4백여명이 1일 하오 한인타운 인근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한인가게를 경비했다. 한인타운은 이들의 경비로 폭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일 : 2일 웨스턴애비뉴와 월셔블러버드의 월튼극장 주차장에서 한 한인교포 가 라디오를 통한 제의로 한인 1천여명이 참석 평화시위를 했다 (사진).

4일 : 폭동피해자를 위해 한인청소년들이 가두모금을 하고 있다 (사진).

4일 : 2만병력 배치 LA폭동진압위해

4일 : 부상한 동료가 말하는 에드워드 이군 사망순간

4일 : 한 흑 대화 주선하겠다, 제시 잭슨목사 3일 타운방문 위로

4일 : 평화대행진 (2일) 수만(2만 내지 10만으로 추정)인파 함성 -

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주 방위군과 경찰 선도차의 안내로 아드모어 공원 출발, 올림픽가 동쪽으로, 웨스턴가를 통과, 3가를 가로질러 버몬가를 따라 행진(사진). 시위인파가 웨스턴가를 지날 때는 수만명에 달했는데 후미까지 질서정연한 행진을 보였으며, 행진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휴지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평화시위를 벌였다.

4일 : 부시대통령은 2일 4.29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LA일대를 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임시주택, 저리용자 등 혜택을

받게됐다. 그는 윌리엄 메디고비치를 LA지역 FEMA(연방비상대책국) 담당자로 임명했다.

4일 : 워싱턴 포스트지는 2일 LA 흑인폭동에서 한국교민들이 무장 자위단을 구성해 약탈자들과 대치한 사실을 1면 기사로 보도하고 한국교포들이 경찰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 긴밀히 연락,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5일 : 피트 윌슨 주지사는 3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서 한인타운 재건비상 대책본부 관계자들과 가진 회담에서 예산부족으로 주 정부 차원의 무상원조, 면세, 무이자 융자 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

5일 : 한인타운에서 한 교민 방화로 잔해만 남은 가게 수습 (사진)

5일 : 4.29 폭동피해 보고서 (양식) - 한인구호비상대책본부

5일 : 올림픽가 라디오코리아 인근에 마련된 사랑의 장터에서 폭동피해신고 접수 (사진)

5일 : 5.2 평화 대 행진을 보고 - 눈물겨운 동포애 좌절은 없다 (손가명)

5일 : 코리안이 분노하는 이유 (이철 - 4.29 폭동 논평 시리즈 1)

5일 : 교민재건 최대지원, 김대중민주대표, 4일 폭동피해지역 둘러봐 (사진)

5일 : 빌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후보 출마자 4일 한인타운 폭동피해 상점 둘러봐 (사진)

5일 :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마자 패트릭 뷰캐넌이 LA 폭동지역을 찾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있다. (사진)

5일 : 채널7 KABC-TV 방송의 편파보도 시정을 촉구하는 지위가 3일 하오

2시 KABC-TV 방송국 앞에서 열렸다. 시위를 벌인 약 3백명의
한인들은 KAC-TV가 지난 30일 하오 자경대의 권총발사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되풀이해서 방영하고, 이번 폭동을 두순자씨
사건과 연결시켜 설명하려 했으며,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의 주장
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항의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담은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ABC-TV
보도국 부국장 짐 하텐도프 부국장은 우리의 보도는 공정한
것이었으며 너희 같은 폭도들의 룰에 따라 보도할 수 없다고 말했
다.

6일 : 4.29 비상대책본부 성금위원회 구성 (9명) -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
설 치

6일 : 동양선교교회 파킹랏에 설치된 한인구호비상대책센터에서 2천여 한
인 에 구호품

6일 : 본국정부 실태조사단 4일 비상대책본부 관계자들과 면담, 총영사관

6일 : 흑백갈등의 표적 될 수 없다(장태한 - LA 폭동에 부치는 긴급기고).

6일 : 한인들 적어도 4억달러 피해추산

6일 : 흑인들이 한인가게 지켰다, 브로드웨이와 74가 부처 보이스 마켓, 단
골 고객들이 밤새며 3일간 수호

6일 : 한국의 대학생들이 4일 서울의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LA 인종폭동
관련 반미시위 (사진)

6일 : 흑인폭동 발생 6일째인 4일 롱비치를 제외한 LA카운티 전지역의 통
금 령이 해제되고 각급 학교와 관공서,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하였다.

7일 : 흑인 58% 폭동비난, 여론조사, 71%가 로드니 킹 평결 불만

7일 : 김동길 국민당최고위원과 봉두환 국민당 전당대회회장은 LA폭동으
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사후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5일
LA에 도착했다.

7일 : 마호니 추기경이 피해업주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

7일 : 캄튼패션센터 한인 상인들 캄튼시의 식량지원 요청에 5일 2만5천달
라 어치의 식품을 캄튼 블러버드 소재 구세군 회관에서 흑인주민들에게
제공

7일 : 동양선교교회 피해대책본부에서는 피해를 당한 한인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경찰리포트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8일 : 폭동 발생 이후 한인 자경대의 총격 장면을 충분한 해설 없이 되풀이
방영하고 흑인 커뮤니티 관계자들만의 말을 빌어 이번 폭동을 한 흑 갈등
차원에서 조명하려는 듯 한 인상을 질게 풍겼던 KABC-TV는

6일 하오 11시30분부터 방영된 '나이트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의 늑장 배치와 4.29폭동사태를 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시각을 방영했다.
테드 카폴과의 대화에서 한인변호사 앤젤라 오는 "한인커뮤니티는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폭동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8일 : 폭동이 한창일 때 두 여인이 만면에 미소를 띠고 약탈한 옷가지를
가 득 안고 옷가게를 나오고 있다. (사진: Los Angeles-AP)

8일 : 정원식 국무총리 7일 코리아타운 피해업소 방문 (사진)

8일 : 5월7일 부시 대통령이 코리아타운의 라디오코리아 방송실에서 한인 인 사들과 만나 한인사회의 건의를 청취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 다.

8일 : 폭동피해한인 5백여명 6일밤 부시미대통령의 LA숙소인 보나벤처 호 텔 앞에서 부시면담 요구하며 시위 (사진).

8일 : 7일 부시대통령의 코리아타운 방문동안 한인들은 시종 한인의 권익 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재정지원을 보장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사진: "We Need Money Now" 라는 글이 담긴 배너를 들고)

8일 : 분통 (안재성 에세이)

8일 : 재해대책본부 관계자들 한인 피해액 3억4천만불 집계

8일 : 피해한인들 정부보상요구 - 생계 막연 웰페어 절실 대책협의회 (회장 이정) 결성

8일 : 인종갈등 없는 곳 서 편한 잠을 - 지난 30일 숨진 폭동희생 고 이재 성 (Edward Lee) 군 장례식이 LA 아드모어 공원에서 6일 상오 LA영락교회 안덕원 목사의 사회로 5천여 교포가 참석하여 애도하 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8일 : 동양선교교회에 설치된 긴급 구호본부에는 많은 청년들이 매일 자원봉사자로 나와 피해신고접수 및 구호품 분배를 도왔다. (사진)

8일 : 부시대통령이 올림픽-웨스트레이크가에 긴급재난구호를 위해 마련 된 [사랑의 장터]에서 한인 대표들과 폭동수습책을 논의하기 전 장내를 돌 러보고 있다. (사진)

8일 : 4.29폭동으로 인한 한인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일 LA에 온 김 남 의원, 이상희 14대 국회의원 당선자(민자)는 이렇듯 무참히 짓밟힌 한 인타운의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게 될 것이 라 고 말했다.

9일 : 한인 청소년 자원봉사자들 피해보고서 작성 (사진)

9일 : 원거리조준용 장총 등으로 무장한 시큐리티 가드들이 한남체인을 철 야 방어하고 있다 (사진). 8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인업소 약 2 천여 곳이 방화와 약탈로 4억 달러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었고

꽃다운 나이로 사망한 에드워드 리군을 비롯하여, 많은 한인들이 부상과 상처로 끝까지 가게를 지킨 일부 업소들은 아직까지도 경계 를 멈추지 않은 채 자체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9일 : 한인훈혈아들 슬러슨 지켰다, 칼베어 경비 사우스LA서 철벽사수

9일 : 2일 3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한인피해자협회(회장 이정) 결성 본 격 활동 - 무상배상관철시까지 투쟁 다짐

9일 : 연방비상재해관리청 (Federal Emergency Disaster Management Agency: FEMA) 구호센터가 코리아타운 내 아드모어 공원을 비롯 7개 지역에 8일 상오 10시에 일제히 오픈

9일 : LA한인사회 폐허서 다시 서자 (4). 우리도 자성을: 흑인상대 돈 벌며 고객에 배타적인 자세, 언행부터 가다듬고 이웃사랑 실천할 때

9일 : 4.29폭동에도 불구하고, 사우스센트럴지역에서 영업하던 대다수 한인들은 이곳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했다.

10일: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 위원 명단 발표

10일: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 보조금 지급신청안내

10일: LA한인사회 폐해서 다시 서자 <5> 하나로 뭉치자 -엄청난 재난 맞아 단결력 절실 공감확산 - 구심점 찾기 - 1.2세 융화 - 정치참여도모

10일: LA복구사업 장미빛 아니다. 한인 피해보상은 고국성금,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융자 뿐.

11일: 미국내 대형 체인마켓인 본스마켓에서 한인 폭동 피해자들을 위해 총 2천박스에 달하는 25가지 생필품을 8일 상오 동양선교교회에 마련된 재해대책본부에 전달했다.

11일: KTAN-TV 공개홀에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 긴급 생계비 신청 대 9일 설치 신청서 접수 - 1차 긴급생계비 가구 당 5백달러 씩

지급, 8일 현재 1백43만달러 모금

11일: FBI, LA폭동 물증 확보, 미 연방수사국(FBI) 관계자는 10일 이번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2천4백여 한인업소중 상당수는 흑인 갱들에 의해 사전에 방화와 약탈의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물증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한인업소 방화를 진두지휘한 갱단은 크리스와 불러즈로 드러나고 있다.

12일: 김수환 추기경 5만불 - 폭동피해 내 동포 돕자

12일: U.S. News: LA흑인폭동과 한 흑 관계 - 한인들 강한 결속에

흑인질시, 억척생활로 성공적인 이민불구 타 공동체와 연대 약해
시비대상

12일: 11일 KTAN-TV에 마련된 접수창구를 찾은 박종상 LA총영사는 “재난 구호성금은 피해자들에게 즉시, 그리고 공정히 지급돼야 한다”며 코리아타운 비상재해대책본부 구호성금지급사업을 격려했다. (사진)

12일: 9일 가든그로브 경동 서울플라자에서 오렌지카운티 한인 2천여 명
인종화합 대 썰기대회 개최, 많은 베트남인들도 베트남기를 들고
참석

12일: LA타임스는 11일 이번 폭동으로 피해를 당한 1만개 사업체 가운데
최소 3천개 업소는 영업을 재개치 못 할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연방센서스국이 11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폭동이 발생한
사우스LA지역의 빈곤선 이하 가구는 무려 30.3%로 전국평균치
11%를 거의 3배 가량 넘으며, 와츠 폭동이 발생한 지난 65년의 빈
곤 가구 비율 27%를 상회해 이곳 도시민민의 생활상은 지난
4반세기동안 거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LA타임스 10일자 보도: 현재 사우스LA의 70스퀘어마일 지역에는
7백28개의 리커스토어가 있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단지 35개만
이

줄어든 숫자다. 리타 월터스 시의원은 사우스센트럴 LA에는 이미
너무 많은 리커스토어가 있다며 “우리의 꿈은 더 이상의 리커가 이
지역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3일: 온정물결 - 동양선교교회 10만5천9백30달러 폭동피해성금 코리아 타운 긴급구호센터에 전달

13일: 코리아타운 비상구호대책본부가 설치한 긴급생계비 지급창구에는 12일 정오까지 1천3백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생계비 지급 첫날인 12일 성금을 받은 한인은 2백여 명이다. 비상구호대책본부 위원장이 12일 제 1차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는 조정옥씨에게 5백달러 수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조정옥씨는 “지난 30일 물건을 잔뜩 해 넣느라고 단돈 30달러만 남겨놓고 사고를 당해 그 동안 쌀과 라면 등의 구호품으로 생계를 꾸려 오며 오늘도 제일 먼저 나와 기다렸다”며 성금을 보내준 한인들과 생계비 지급을 하루라도 빨리 해 준 비상구호대책본부에

감사했다.

13일: LA폭동위원회는 4.29폭동시 LA경찰의 전반적인 활동과 대처방안 등을 조사할 특별조사반의 위원장에 전 CIA와 FBI국장을 지냈던 윌리엄 웹스터를 임명했다.

14일: 정신적 폭동 후유증 심각 - 시민들 두통. 불면. 우울증. 분노에 시달려

14일: 정의는 백인만을 위한 것인가, 백인운전자 구타 흑인체포에 시민들 반응 냉담

14일: 가주예술인연합회 (회장 위진록) 9일 피해한인 돕기 위한 모금행사 성황 고전무. 시 낭송등 다채, 70여명 모여

14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3일 흑인폭동을 겪은 로스앤젤레스시에 대한 6억달러 상당의 추가 연방 융자금을 승인했다고 백악관측이 밝혔다.

14일: USA투데이지가 지난 4 - 9일 출옥한 폭동관련 범법자 2백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흑인들의 80%가 한인들이 평소 흑인들을 무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의 이 같은 응답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한다는 비율 56%보다 훨씬 높다.

14일: 코리아타운교민회는 올해 선거에 출마하는 일부 흑인정치인들이 “라타샤 할린스를 기억하라 - 어린이의 목숨은 1달러79센트 짜리 오렌지주스보다 귀중하다” 는 문구가 적힌 전단을 살포하면서 한 흑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15일: 조건부 리커, 스와밋 등 재오픈 조례안을 LA시의회가 13일 10대2로 최종 통과했다. 리커스토어, 스와밋, 바디샵, 총포상, 전당포, 중고 물품 취급업소 등 주민들과 논쟁의 소지가 있는 업소들은 영업시간. 가드 배치, 주차장 크기, 주차장 안전요원 배치, 영업시간 조절, 주변 조명시설 설치 등 주민 합의를 거쳐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 최근 뉴욕에서 한 흑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15명의 흑인이 3명의 베트남인을 한인으로 착각, 야구방망이로 집중 구타해 그중 1명이 두개골이 깨지는 등 중상을 입은 사건이 13일 플랫부시에서 일어났다.

15일: LA동부지역 한인자체방어 성과 컸다. LA 동부한인파출소를 중심으로 한인 단체들은 4.29폭동이 발생한 이틀째인 30일 저녁부터 5월2일까지 1백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경비망을 구축

폭동피해를 막았다. 특히 한인 그로서리와 리커업소들이 많은
포모나 지역을 집중적으로 경비, 우범자들의 습격을 예방했다.

15일: 도산 안창호의 아들 66세 랠프 안씨 12일부터 KTAN-TV 강당
코리아타운비상대책본부 생계비지급 피해자 접수창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있다.

15일: 코리아타운비상구호대책본부는 14일 폭도들의 방화로 불에 탄
한인소유의 리스리커 히스패닉 종업원 안젤 모랄레스에게도
5백달러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15일: 뉴스위크지는 18일자 최신평 커버스토리에서 한인상점에 대한 방화
와 약탈이 자행된 이번 LA폭동사태는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미
국은 기회와 약속의 땅이라는 믿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그간 별 교
류가 없었던 아시아계간의 단결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시사주간지는 돈 없고 일자리가 없어 빈곤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맨주먹으로 성공한 한국인들에 의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인종갈등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 노동의 가치,
가족의 윤리확립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15일: 13일 하오 3시에 미 전역에 방영된 NBC <필 도나휴 쇼>에 앤젤라
오 변호사와 한인상인 제이 이씨가 출연해 전례 없는 4.29폭동의

속죄양이 된 한인사회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했다. 흑인 참석자들은
흑인들은 자라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주변환경으로 인해 갱
멤버가 되고 있으며 이들도 속죄양이라는 흑인사회의 실상을
전달했다.

15일: 보스턴시장이며 전국시장회의 회장 레이몬드 폴린은 “미국내 시장
들이 LA폭동이전에 도시문제해결을 위해 3백50억달러의 지원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히고, 행정부와 의회가 도시빈민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15일: LA에 배치됐던 1만명의 주 방위군중 13일 4천명이 철수중에 있다.

16일: 남가주 한인 총대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LA시청 앞에서 4.29폭동 피
해 한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16일: 피해한인 돕기 위한 모금행사(연변무용가협회회장 이록순씨 자진출
연)

16일: 한흑연맹 관계자 20여명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

16일: 한인상점과 흑인데모대 (이철 - 수요칼럼)

16일: 한인변호사협회 (회장 임승천) 월셔 월튼극장에 임시사무실 마련 70
여 명 회원 장기적 무료봉사계획 - 4월30일부터 무료법률상담 실시

16일: 한인피해자협회에 등록한 한인 모두 1천여명

16일: 오렌지카운티한인회 주최로 9일 열린 인종화합 께기대회에는 2천여
한인들과 각 소수민족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즉각적인 피해보상과 대릴 게이츠 LA경찰국장
의 문책 등을 요구했다.

16일: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한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한인과 히스
패닉 거주자가 많은 코리아타운은 1990년 현재 빈곤선 이하의 인구가 무

려 30.7%로 미 전국평균 12.8%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와츠지역의 빈민율은 38.3%로 LA카운티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90년 센서스에 나타난 코리아타운의 인종비율은

아시아인 36.4%, 백인 23.0%, 흑인 6.5%, 기타 34.1%이다. 80년에는 이곳의 인종별분포가 아시아인 25.5%, 백인 42.3%, 흑인 5.8%, 기타 26.4%이었다. 이 지역 히스패닉인구를 따로 분류해 추산하면 80년에 38.6%이던 것이 90년에는 52.3%로 크게 증가했다.

16일: 폭동으로 전소된 리커스토어 재건을 막으려는 사우스 센트럴 주민들의 압력에 대해 한인과 흑인상인들이 연계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남가주흑인식품상연합회 조셉 솔로몬 회장은 조만간에 한인남가주식품상협회 대표자들과 만나 연합전선을 구축해 사우스LA 리커스토어 수를 제한하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에 맞서 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4.29 자경단 선언문: 4.29폭동을 계기로 일어서 뭉쳐진 저희들
자경단은 교민 여러분을 계속 지키겠습니다. 지난
4.29 폭동기간 중 LAPD와 LA시 그리고 가주 정부와 연방장부의
외면 속에서 우리 코리아타운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여 총을
들고 폭도와 싸워온 저희 자경단 단원들은 이제 지속적인 자체
타운방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단장 사상균 외
44명 이름 전재 (전면).

16일: 동양선교교회 비상구호대책본부는 마이클 우 시의원 주선으로 지난
11일부터 6월10일까지 폭동패해자들을 위해 무료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6일: LA카운티 검시소 밥 댐배커 대변인은 15일 LA폭동으로 사망한
사람이 58명에서 59명으로 1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16일: 한인상가를 지키러 가다가 총 맞아 숨진 이재성군이 탑승했던 91년
형 세비 승용차를 운전했던 제임스 강군은 사건이 발생한 30일 하오
10시께 이 승용차는 3가와 호바트가에 정차해 원산면옥에 있는
사람이 한인인지 히스패닉인지 알아보기 위해 이군이 창문으로
내다보는 순간 총알이 날아왔는데 이 총알이 이군의 목을 관통했다
고 말했다.

17일: 타운업소 우리가 지킨다-한인청년단원들이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샷건을 들고 웨스턴과 9가 인근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위를 살피고
있다. (사진)

17일: 폭동상처 빨리 치유되기를 - 일본계식품회사, 3만5천불 상당 물품
기탁

17일: 일본커뮤니티서 9천5백불 기부 - 한미연합회 청소년회관에 각각 전
달

17일: 한흑갈등을 해소하는 길: 대등한 관계서 흑인입장 이해 노력을 - 광
철 (특별기고)

18일: LA타임스 17일 1면 기사에서 한인사회가 4.29 폭동을 계기로 정치
력 신장을 절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 5.18 광주 민중항쟁 제12주년 기념식 및 4.29 LA사태 공개 토론회가 16일 로스앤젤레스 제일 침례교회에서 열렸다.

18일: 연방 비상재해 관리청(FEMA)은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신속하게 연방재해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933 S. Lake Street)에 재해 대책강구를 긴급 마련, 18일 상오 10시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폭동으로 비즈니스 피해를 입어 렌트와 모기지를 낼 수 없는 한인들에게 18개월까지 렌트와 모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19일: 라스베가스 문중환씨 LA폭동 여파로 50만달러에 매입한 마켓 날리고 한숨 - 재해지역 제외 보상 막막

19일: 한인사회 지도자들은 18일 LA한국총영사관을 방문한 톰 브래들리 LA시장에게 리커업소 및 스와밋 영업재개에 있어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지난 13일 통과된 시 조례는 이 업종에 주력하고 있는 한인 상인들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 조례의 무효화를 요구 했다. 이들은 또 한인들은 정부의 보상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경찰의 잘못으로 하루밤 사이에 잃어버린 사업체들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뿐 이라며 시 정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9일: 데일리 뉴스 분석 (18일) - 4.29로 더욱 악화 - 한 흑 갈등 해소 암울: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이번 폭동을 흑인들의 사우스센트럴 지역 상권장악의 계기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한인 상인들은 가게를 원래의 자리에 재건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비추고 있어 양 커뮤니티 간에 상권장악을 위한 또 다른 대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일: 인종차별의 벽 앞에 서서 (박록 - 차를 마시며)

21일: 한인구호품 배급창구 동양선교회로 통합

21일: 20일 상오 9시 코리아타운의 피해주민 간담회에서 50여명의 한인 피해 자들은 그동안 한인커뮤니티에서 적극 후원한 네이트 홀든 시의원에게 그가 영업재개에 규제를 가하는 새 시 조례에 동의한 것을 강력히 항의했다.

22일: 사실: <그들>이 누구인가 밝혀내야 한다. 삼삼오오 차에 나누어 타고 코리아타운에 나타나 콜라 강통에 휘발유를 담아 한인가게에 던진 <그들>은 누구인가.

23일: 코리아타운 비상대책본부 긴급생계비 1백5만5백불 지급 - 폭동피해한인 2천1백1명에 동포온정전달 - 본보 미주본사 2백26만 달러 접수 - 나머지 성금관계기관에 전달계획

23일: 긴급 생계비보조 보람 컸다-성금지급 끝낸 타운비상대책본부 관계자들

24일: “한 흑의 만남 -이해와 협조를 위하여” 한 흑 관계 심포지엄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Institute of Asian American and Pacific Asian Studies (아시안아메리칸 및 태평양 아시아 연구소 (소장 유의영) 주최, 5월 22 - 23일. 한 흑 학자, 종교인, 커뮤니티 리더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은 이번에 발생한

4.29폭동의 원인이 인종적 갈등보다는 미국이 안고 있는 사회, 경제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특히

소수민족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차원의 교류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흑간의 갈등은 한 흑간의 인종적 반목 때문만이 아니며 지역적 빈부의 차이,

소수민족의 고용문제 등 사회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4일: 한국기독교 재미교포 재해긴급대책위원회(회장 유호준목사)는 한 흑 갈등해소를 위해 10만불의 성금을 한흑기독교연맹(공동대표 박희민, 조셉 그리핀)에게 전달했다.

26일: 25일 김치현 남가주한미식품상 협회장등 임원진이 흑인갱단 블러즈 대표들과 만나 한 흑간 신뢰회복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26일: 본보, 25일 흑인갱단 블러즈 대표와 일문일답 - 한인상인들이 흑인의 돈, 일자리 모두 빼앗아 갔다. 한인업소만 목표로 삼지 않았다.

흑인들은 생필품 구입도 어려워 고통을 받고 있다. 사우스센트럴로의 한인복귀 원한다고.

26일: 폭동피해 LA교포 위문공연 - 24일 아드모어 공원 - 이주일 이덕화씨 등

27일: 26일 한 흑 지도자 회동 관계개선 논의

27일: 지난 18일 LA 다운타운 뮤직센터 애넥스홀에서 공연된 중국계 미국인 여류극작가 엘리자베스 왕(33)의 작품 <김치와 치틀린즈>가 LA폭동 등 한 흑 갈등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작품은 뮤직센터가 차기 공연작품을 고르기 위해 선별한 작품

3개를 250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려져 매스컴의 초점이 되고 있다.

27일: 4.29폭동으로 LA지역 한인호텔들의 대부분의 5월 투숙률이 전년에 비해 10 - 40% 하락 고전을 하고 있다고

27일: LA지역 침례교회 목사연합은 사우스센트럴 LA지역 재건에 흑인 건설업자들이 참여해 흑인지역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흑인 건설업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시 피켓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침례교 목사회 F.G.히긴스회장은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들의 대부분이 샌퍼낸도 밸리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들”이라고 말했다.

28일: LA카운티검찰이 21일 발표한 갱조직과 범행추세에 관한 보고서는 LA 카운티내 21 - 24세 젊은 흑인남자의 절반이 갱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LA카운티내에서 활동하는 갱은 9백36개 조직으로 15만명이 가담해 있는데 이중 3만7천명은 흑인이고 5만8천명은 히스패닉이라고 지적했다.

28일: 흑인사회의 대표적 교회 퍼스트 AME교회(목사 세실 머레이)가 28일 향성수목사와 제리 유 KAC 사무총장등 한인인사 60여명을 초청 조찬기도회 및 토론회 개최 - 이 자리에서 정동수 변호사는 흑인들의

사과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전미주 한미식품상 총연합회(회장 김양일)와 남가주 한미식품상 협회(회장 김치현)가 25일 Los Angeles 흑인 갱단 대표들과 만나 7개 협의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인들은 범죄집단인 갱과 손잡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강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가 갱단들의 고의적인 방화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동자를 색출해 줄 것을 FBI에 강력히 요구해도 모자랄 이 시점에서 갱과의 화해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LA시의원 마이클 안토노비치는 “이것은 마피아와 함께 협상을 맺는 것 같았다.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28일: LA타임스와 USA투데이는 각각 7일자 기사에서 한인식품상협회 관계자들이 흑인갱단들과 만난것에 대해 대대적 보도를 하고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한인 식품점 관계자들은 흑인 갱단이 제의한 7개 사항을 논의했을 뿐, 동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29일: 4.29폭동 1개월, 잃은 것 과 얻은 것은 (사설)

29일: 한인업소 네곳 첫 SBA 용자 -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다

29일: 인종갈등 해소. 화합 한인 젊은 세대 나섰다. 1.5 - 2세 기독교인 흑인교회 화합예배 대거 참여 (마라나타 커뮤니티 교회)

30일: 한 흑 관계 잘못보도, 폭동책임전가로 몰고 갈 오해소지, LA타임스 프 랭크 델 올모 논설위원, 본보 인터뷰

30일: 코리아타운 비상구호 대책위원회 구호금 결산 (28일 현재 성금접수 및 지급현황): 성금 기탁자 수 770명, 접수성금총액 \$2,534,899.78, 입금성금총액 \$2,292,769.65, 생계비 신청자 총수 2,147명, 생계비 지급자 총수 2,101명, 생계비 지급총액 \$1,050,500.00, 접수성금 잔여분 \$1,089,237.74. “기탁자 뜻 살려 신속, 공정하게 지급. 잔액은 책임 있는 관계기관 이관.

30일: 폭동복구 (1) 한달 지난 상처 진단 시리즈: 사우스 LA 떠날 것인가 들어갈 것인가, 보험금 가능한 세탁업 재개 의욕, 스와잇은 회의적. 약탈 등의 미약한 피해를 당한 업소들은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나 전소 당한 업소들은 영업 재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윌리엄 웹스터가 이끄는 4.29 폭동수사특별위원회는 LAPD의 내부 및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LAPD가 왜 폭동 조기진압에 실패했는지에 대해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LAPD 부국장 마이클 몰린은 조사관에게 LAPD는 폭동진압 준비가 돼있지 않았으며 폭동 초기당시 경찰은 무기가 부족했고 라디오 교신이 정확치 않았고 상관들은 명령태세를 갖추지 않은 채 방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몰린은 4월 29일 놀만디와 플로렌스에서 백인 트럭운전자 레지널드 데니가 흑인 폭도들에게 구타당해 생명이 위협할 지경이었는데도 경찰을 배치하지 않아 데릴 게이츠 LAPD 국장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31일: 하나님아래 인종갈등 없다. - 흑인교회에서 화합예배

1992년 6월

2일 : 재기의 젖줄 SBA론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Loan) 한인들
숨 통, 융자조선 이자율등 유리 예상보다 수혜자 훨씬 많아, 한인 신청자 1
천5백명 예상. 한인업소들 영세보험사 가입 많아 보험금 수령은

20%에 그쳐

2일 : 상해보험급증, LA탈출 보험사 늘어, 기업들 보험가입 어려움, 보험료
인 상으로 2중고, 사업체도 타주 이전 가속화 우려

3일 : 폭동복구 (3), 한달 지난 상처 진단시리즈: 아직도 공포의 앙금 정
상 영업 불안

4일 : 한인은행 폭동피해웅자 1백여건, CKB 150만불, 한미 140만불등 대
부 분 기존고객, BOA올림픽지점 3백여건 신청쇄도 대조적

4일 : 3일자 LA타임스 빌 보야스키 칼럼 폭동때 총격 부상당한 정진무씨
사 연 소개 “폭도 쏘면 갈등 증폭될까 응사 포기” 한인 커뮤니티 이번 폭동
계기로 미국 사회에서의 정치력 신장 절감

5일 : 타운 지키다 총맞은 제임스 강군 폭동의 상처보다 쓸쓸한 투병 고통,
홀어머니 한달 째 아들간병 생계 막막, 찾는 이 없는 병실 “빨리 집 에 가고
싶다”

6일 : 폭동환병 앓는 한인 많다. 아태상담센터등에 150여명 고통호소, 억울
하 고 분해서 의욕없고 잠못이뤄

6일 : 존스마켓 피살강도 부 박태삼씨를 제소

7일 : 서울 영락교회와 소망교회가 각각 폭동구호금 1만불씩 한경직목사
통 해 전달

7일 : 가주 5월중 총기판매 5만8천여정, 폭동총격여파 급증...10년래 최대

8일 : LA방문 정원식 총리 한국내 재산담보 긴급웅자 등 폭동피해교민 지
원 모색

8일 : 코리아타운비상대책구호본부 본보모금 폭동구호금 잔액 1백40만불

7일 피해자협회(회장 이정)에 전달

8일 : 한인업소 흑인 히스패닉 종업원 4명 LA피해한인 성금 2백80달러,
“동 족의 약탈 부끄러웠다.”

9일 : 사우스센터럴 리커재개 논란, 주민단체 사회악온상 수적제한 주정부
상대 강경로비, 주류상협 지역은행역활 생필품공급 기득권 제한 반
발

9일 : KAL 폭동피해자녀 25명 등 하계본국연수생 1백명 선발 6월24일 - 7
월7일, 왕복티켓과 연수기간 일체경비 제공

9일 : LA의 미래와 코리아타운의 재설계: 집을 고칠것인가, 새로 지을것인
가 (창간사설)

9일 : 유의영 특별기고: “흑인의 지위가 향상되지 않는 일차적 원인은 미
국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백인들이 흑인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있다. 그 다음으로 빈민가의 흑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
엄 성과 자신감 및 긍지를 찾지 못하는데 에 있다.”

11일: 월스트리트 저널 - 사우스LA 리커 규제는 잘못

11일: 폭동피해보상 시 제소 순조, 한인 1천5백명 서명 시청앞 농성등 병

행 키로, 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

11일: 한국일보 본사 모금 LA 폭동피해교민성금 23억원 한국적십자사에 전 달

12일: LA폭동 때 한인약탈 사전모의, 크립스등 2개 범죄집단 진두지휘 총격 FBI 흑인 갱단 계획적 공격 물증확보

12일: 남가주 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 9일 일본계 목사들의 모임 니케이 목회 협회와 함께 한 일 목회자 인종화합협력 친교예배

12일: LA 사우스센트럴 지역에서 레코드가게를 운영하던 로버트 존슨이 자신의 불탄 가게에서 타다 남은 물건들을 뒤적이고 있다. 그는 15년간 이 지역의 흑인상인으로 신용과 존경을 얻어 이번 폭동 시 자신의 가게가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 (사진: Los Angeles-AP)

12일: LA경찰위원회가 11일 LA경찰국(LAPD)의 4.29폭동 <늑장진압>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12일: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 월드리포트> 11일자 기사: 한인들 강한 결속에 흑인들 질시, 억척생활로 성공적인 이민 불구 타 공동체와 연대 약해 시비대상

12일: 한국정부 대책: 한국정부는 LA흑인폭동사태로 교민이 입은 피해의 복구 및 보상문제는 1차적으로 미국 내 구제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남가주미주류상협회 엘리웃 번버그 회장 리커 재개 적극 지원, 폭동 책임 일부 리커 업체 전가는 어불성설, 시 정부와 흑인지도자들 업주 권리 무시 분개

13일: 새 LA건설 아태아메리카 발족 - 아시아인 목소리 응집 100만 인구 제 몫 주장

13일: 리커 조건부 재오픈 AB40 법안 큰 반발, 영업자유박탈 부당, ABC License 세미나서 한인업주들 강력주장

13일: 한인변호사협회, 피해자협회, 시, 주정부 상대 폭동소송의미, 가만 있으면 병신 취급, 승산 희박하지만 정치적 의미 크다.

13일: USA 투데이 12일자 폭동피해몰살 한인커뮤니티 보도: “위기 봉착한 성공이민” - 끈기, 근면 바탕 스몰비즈니스 장악, 기득권 상실한 흑인들 반발 표면화. “한인들은 이번 폭동으로 1천5백여개의 한인업체가 전체 피해 추정액 7억5천만달러의 절반가량인 3억7천5백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싹발이 된 한인중소업체들이 알짜배기였다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5일: 14일 웨스턴 애비뉴에서 프랭클린까지 3만여 명 다민족 다인종 주민들 [손에 손잡고] “반드시 재건한다” 행사 큰 의미 남겨, 정부 도움없이 주민 스스로 마련, 한인 크게 부각됐으나 참여자 극히 저조

16일: LA성금 (이문희 - 화요칼럼)

16일: 리커 재개 주민공청회 부당, 한인피해자협회 가처분신청

16일: LA타임스, “폭동피해 보상 아시아계 단결” 한인 3천명, 중국인 3백명, 캄보디아인 1백48명, 베트남 1백25명, 인도, 파키스탄인 등 포함 [LA

폭 동 아시안 피해자 연합] 결성

18일: 우리아들, 모두의 아들 - 엘에이가 한꺼번에 불타던 날 (로라 김 - 시)

18일: 찰스 로이드 변호사 흑인커뮤니티 압력불구 두순자씨 변론, 92년 밀알 상 수상

19일: 4.29는 히스패닉 폭동 범법자 1만2천여명중 43%; 방화.폭행등 중범죄는 흑인 34%로 최다

19일: 도시빈민지원 절반축소, 연방하원, 당초 20억불 서약10억불로

20일: LA시 업종변경 권장, 피해자 리커운영 고집, 사우스 LA 41개 피해업소 여론조사

20일: 폭동 가주 경기에 치명타, UCLA 보고서 - 관광객 감소 기업 타 주 이전 가속

20일: 한국계 일본인 흑인양부모 사랑소재 인종화합 스토리 [인종간의 사랑] (Colors of Love) 제작

23일: 본보기자, 폭동후유증 앓는 타운업소 점검 - 한인업주 80% 매상부진 심각, 식당 주차장 하오 5시 이전에 텅텅, 전자업소 1백불 지폐보기 힘들다.

24일: 23일, 시청 남쪽 입구 아시안 7개국 500여 폭동피해자들 연합시위 - 소수계 권익보호 제도적 장치 요구

25일: LA시 계획위원회 23일 케드런 커뮤니티 헬스센터에서 사우스센트럴 LA소재 리커스토어 영업규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주민들 리커스토어 많아 우범지대화 된다고 주장

27일: 한인 폭동피해자 SBA융자 7백11건 5천2백90만불, 한인은행 특별융자 1백26건 4백55만불

27일: 4.29 두달: 한인 보험금 지급률 20-30% 수준, 폭동 전 매상 미달 회복에 고전, 코리아타운. 사우스LA 한인업체 복구차질 흑인고용 걸림돌 작용

30일: 폭동피해보상의 허와실 - 강민호 (독자투고)

30일: LA타임스 27일 보도: 폭동피해 정부보조 푼돈, 형식적인 지원금 불과 장기대책 미흡, 재발대비 기금전부, 실질적 도움 위면

30일: 남가주한인사회 범 교포 차원 구호단체 첫 탄생, 비영리 "한미구호봉사기구 (Korean-American Food & Shelter Service)" 결성, 빈곤층, 무숙자 돕기활동 시작, 황익수 회장 29일 기자회견, "폭동발생 후 지난 8주 동안 매일 5백명이 넘는 한인피해자들에게 1백50만달러 상당의 생필품을 분배했다"고 활동상황을 보고

1992년 7월

1일 : 흑인들, 다시 한인괴롭힌다. 폭동복구 공사장 몰려와 생트집 난동. - 베 이크웰 추종자들 "고용 안 하면 실력행사" 협박.

1일 : 「리커면허 규제 안」 부결. 가주 하원특별소위 한인시위 큰 효과. 폭동으로 파괴된 리커스토어나 범죄 다발지역 리커스토어에 대한 주류판 매허가규제에 관한 주 법안 AB40이 부결됐다. 29일 하오 1시30분 새크라멘토 주 의사당에서 열린 ABC 면허 특별규제법에 관한 청문회에서 「면허특별소위원회」 (Government Organization Committee) 는 이 법안을 7대 0

으로 부결시켰다.

1일 : 톰 브래들리 LA시장은 29일 하오 12시15분 1600W. 스러슨가에 위치 한 LA 스러슨 스와밋(대표 윤성섭)을 방문하고 4.29폭동 후 커뮤니티 재 건작업을 도와 온 스와밋 관리사무소 관계자들과 입주 상인들을 치하했다.

1일 : 한인 폭동피해자들은 시청앞 시위 15일째인 29일 톰 브래들리 시장의 보상에 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2일 : 한인은행 영업 “침체” 2.4분기 결산 7개 은행 순이익 절반수준...예금 고 도 3% 감소

3일 : 폭동피해자 시위 17일째 - 브래들리 시장 면담 대책촉구 - 2일 정식 만나, 사우스LA 한인재건참여, 보상 조속 실시 요구

3일 : 휠체어 탄 “말없는 분노” 18일째 폭동피해보상 시위나선 장애인 신호 존씨, 점포 3곳 불태워 82만 여 불 피해, 주위선 “인간미 넘치는 사람 평”

4일 : 폭동피해업소. 48%가 무 보험.- 4.29 LA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들 가운데 약 절반정도가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들 가운데 1천8백 59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8%에 해당하는 8백 90개업소가 보험에 가입치 않았으며 이들 업소들의 피해액은 8천7백 만달러를 넘었다.

4일 : “성금 감사결과 공개하라” 폭동피해자협 “빠른 마무리로 의혹 없애 야”-성금접수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공인회계사협회는 지난 5 월20일 감사위원장(조웅직), 6명의 감사위원등 7명의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감사반을 구성, 지난 6월15일부터 한국일보. 중앙일보 KCB(미 주 한인방송). 미주복음방송등 6개 언론기관과 범교포 4.29피해 대책 복구위원회에 대한 성금접수 내역을 감사해 왔다.

4일 : 성금관리분과위. 조직개편 “모순”- 관례적 병폐우려. 피해자협서 반대

6일 : 빈민층에 야채지원. 한미구호 봉사기구 - 한미구호봉사기구(회장 황익수)는 4일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한인 빈민층 7백여명에게 3트럭 분의 야채를 무상 제공했다.

6일 : 폭동피해 한인 율분표시 “오리건 20개도시 커뮤니티 대표. 경찰연석회의 한인사회 입장전달”-(시애틀지사) 4.29폭동사태와 같은 불상사 재발방지를 위한 경찰관계자와 커뮤니티 지도자 연석회의가 지난 19일 열렸다. 이날 연석회의는 미서부지역 20개 도시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틀랜드에서 진행됐다.

7일 : 일본 문화센터 피해성금 KAC.KYC에 4,735불씩.

8일 : "LA재건 5년 걸린다" 위버로스 회견 새일자리 5만7천개 창출. 소수민 족사업체 활성화 주력. "지지부진" "이사진 대표성 미흡"등 비난받아.

8일 : CRA 폭동 피해 긴급 무상지원금. 한인이 첫 수혜 - 커뮤니티재개발국 (CRA)은 6일 LA시 재개발지역에 위치한 폭동피해업소에 지급하는 긴급 무상지원금의 첫 수혜업소로 한인 헨리 박씨(45) 부부가 운영하는 「필

스 커피샵」 (100 S. Spring St.)을 선정 1만9천달러를 지급했 다고 발표했다.

8일 : “본국 성금 도착” 총영사관 언급회피 일부은행 사실 확인. 폭동성금 감 사 지연.

8일 : “폭동피해 보상하라” 이정씨 단식. - 7일부터 시청 앞서 무기한 투쟁. 한인폭동피해자협의회 이정 대표는 7일 상오 7시부터 시청 앞에서 시 차원의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정 대표의 이날 단식투쟁 시작으로 앞으로 피해자협의회 회원일부가

동조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청 앞 이대표의 단식투쟁 현장 에 는 마크 리틀리 토마스 시의원과 마이클 우 시의원이 나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으며 LA타임스 등 미국 주류 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다.

8일 : 롱비치시에 소재한 설문조사 연구기관 「컨수머 다이내믹스」 가 지난 2월2일부터 5월29일까지 한인 1백53명과 흑인 1백67명, 히스패닉 25 명, 백인49명, 기타2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인과 흑인사 이 의 관계가 좋다」 고 응답한 흑인은 44%, 보통 37%, 나쁘다 12%로 나타났으며 한인의 경우는 응답자의 70%가 좋다. 17% 보통, 5%

나쁘다 로 응답, 대부분의 흑인과 한인들은 한 흑 관계가 우호적이 라 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 번창하는 한인 스와밋 「시앰과 견제」 의 표적. LA타임스 보도 - 이 신문은 80년대 중반 한인 상인들이 한국의 「시장」 을 본 따 만들어 낸 스와밋이 번창하면서 흑인 주민들 사이에 한인들만 성공하고 있다 는 시앰을 낳았으며 이 때문에 폭동당시 주된 표적이 됐다고

분석했다.

9일 : 시청건물서 한인시위대에 오물. 브래들리 사과 - 3세꼬마 실신등 7명 부상. 시청앞 한인시위대에게 잉크병등 쓰레기가 던져져 한인시위대 원들 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톰 브래들리 LA시장이 시위대에게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를 약속하고 있다. (사진)

9일 : 두씨 30만불 보상 합의 - 할린즈 유족 송 취하 . 두순자씨의 총에 맞 아 숨진 라타샤 할린즈의 친족들이 두씨와의 민사소송에서 30만달러 보상에 합의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9일 : FEMA 보조금 한인신청 1만건. - 연방 비상재해관리청(FEMA)에서 4.29폭동 피해자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무상보조 프로그램의 수혜 자 중 80%가 한인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 4.29 한인폭동복구 대책위원회 산하 성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기환) 는 7일 정오 피해자협의회 사무실에서 교포 구호성금 중 10만달러를 피 해자들의 시위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협의회 송원호 총무에게 전달 했 다.

10일: 리커 조건부 영업재개 첫 공청회. 최종결정 못 내려 - 캄튼 시회의 실 서 한인 150여명 참석, 인근주민도 「재개」 주장.

11일: 성금처리 피해소송 의견집약 공청회연다. - 11일 동양선교교회 피해 당 사자 전원 뜻 수렴.

11일: 경찰이 총상아내 방치 - 업소침탈 폭도 못 본채. 폭동피해한인 “LA시 제소” - 「김스TV」 김병균씨, 정부 및 경찰도 함께 자체방어 나서자 무장 해제, 2백만불 손해.

12일: 브래들리, 폭동피해한인 12개 요구에 긍정적 답변. 시청앞 시위 한달 만 에 중단키로. 이정회장 “시차원으론 최대한 힘쓰듯”-4.29이후 시에 납 부한 모든 세금 환불, 재건위에 동양계 2명추가, 소수계 시청직원 채 용. SBA 못받은 피해자에 최고 5만불 용자, 피해보상 50만명 서명운 동 찬성.

13일: 재난보조금 650만불 지급 4천2백52명에 - 7월9일 현재 4.29 LA폭동 으 로 피해를 입어 재난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은 2만4천8백91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4천2백52명이 6백50만달러의 연방 및 가주정부 보 조금을 받았다.

13일: 성금, 공동분배 요구. 폭동피해자 공청회 - 한인 폭동피해자 8백여명 은 11일 상오 10시 동양선교교회 교육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교포성금 및 본국 국민성금 잔여분 6백50여만달러를 피해자별로 일률적 분배, 지 급키 로 결정했다.

16일: 한미 구호봉사기구 항익수 회장 - 지난 6월24일 발족한 가칭 한미구 호 봉사기구(회장 항익수)는 그 동안 폭동피해자들에 한해 생필품을지 급 해오던 종전의 운영방식에서 탈피, 극빈층을 비롯 무숙자 및 가출 자들에 게도 구호활동을 펼치는 등 타운 내 구호사업의 모체로 발돋움 하고 있다.

18일: 폭동피해 스와밋협 발족. 정확한 피해액산정 새 장소 알선 등 처리 키 로.-LA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스와밋 상인들이 15일 「4.29폭동 피해 자 스와밋협회(회장 임원식)」를 조직했다.

18일: “스몰비즈니스, LA재건 주춧돌” -월스트리트저널 “5년내 7만개 일자리 창출...” 한인스와밋등 역할소개. SBA 용자저조. 흑인커뮤니티 반발등 어 려움도 지적.

18일: 인종폭동 역사의 이해를(강민호 토랜스 거주)

18일: 「운영의회정지」가처분 한인회분규 오래 끌 듯 - 한인회 운영의회 (의 장 김기성)가 LA한인회장으로 국영길변호사를 최근 선임한 가운데 일 부 전직 한인회 이사들의 조직인 한사회가 LA 수피리어코트에 소 송을 제 출해 15일 운영의회의 활동정지를 내용으로 한 가처분명령을 받았다.

21일: 뉴욕. 시카고 교회협의회사 폭동피해성금 12만불. 남가주 교회협의 회 앞으로 보내와.

21일: “용자보증금 활용, 복구자금 지원 받도록”(전문가 기고, 하워드씨씨. CPA협회 4.29대책특별 위원회위원장)-“폭동피해 성금 이렇게 쓰자” 피해 자 돈 아닌 커뮤니티 신탁금. 아쉽다고 펀돈분배로 없앨 수 야. 현 7백만불 로 5-10배의 특별용자 받을 수 있어.

21일: 흑인 3인조 고객가장 충격 한인마켓 종업원 중상.-18일 엘몬티 「토 머 스마켓」 현찰 털어 도주

21일: 「타버린 꿈, 남아있는 희망」 4.29폭동 설교집 나와. LA일원 종교지 도 자들 설교 17편 실어.

21일: 이철 논설주간 - 흑인촌에 다시 들어간 사람들 “또 불지르겠다”위협 도 아랑곳없이 결의 대단.

22일: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 - 우리 모두가 폭동피해자. 사옹 둘러싼 불협화음,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불행. 상호이해-대화통한 중지 모아 다수가 공감하는 묘안 짜내야.

22일: “본국 성금 80%분배”-총영사관, 4백45만불 대책위에 전달, 피해자협전액 요구 농성계속. 본국성금 4백45만달러의 일괄 분배를 요구하며 LA총영사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인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 회원들에게 접거농성 하룻만인 21일 상오 2시30분께 본국 재해대책본부 발신으로 본국 성금의 80%인 3백50여만달러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라는 외무부 훈령이 전달됐다.

22일: 영사관을 점거한 채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는 폭동피해자협의회회원들이 “총영사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22일: 피해식품상협 회견-“총영사관 항의사건등 전체 피해자뜻과 무관”-4. 29폭동 피해식품상협의회 서정준회장이 기자회견에서 「50만 교포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주 발족한 4. 29폭동 피해 식품상협의회(회장 서정준)는 20일 정오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협회 활동에 지지를 바라는 「50만 교포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했다.

22일: 피해자협 성금지급요구-영사관 점거농성 박총영사“성금 자의적처리 권한없다” 한인폭동피해자 2백여명은 20일 상오 11시 LA총영사관

5층 회의실을 점거, 성금의 「분배」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피해자들은 이날 총영사실과 회의실로 몰려가 총영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시작, 성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위와 박종상 총영사의 분배 약속 서명을 요구했다.

22일: LA총영사관을 점거한 2백여명이 4. 29폭동피해자들이 박종상총영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23일: 성금수령 무효주장- 21일 하오부터 LA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 40여명이 모여 철야집회를 가진 4.29폭동 피해식품상협의회(회장 서정준)는 22일 상오9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 회장의 성금수령 무효, 성금관리위원회 개편등 성금분배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23일: LA성금 균등분배키로 5백50만불... 피해정도. 형태 고려 안해. 4.29한인 폭동피해자협의회(대표 이정)는 21일 모국에서 보내준 성금 4백45만 달러 중 80%와 미주지역 모금 본 2백만달러 등 구호성금 5백50여만 달러를 전달받고 10일 이내에 이 성금을 공동 분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본국 성금수표 동결 - 하기한 위원장 “강압에의한 이서” 주장...

은행에 인출정지요청, 하위원장. 은행간부등 자취감취. 피해자협의회 선 긴급대책 속의.한인폭동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가 21일 하오 LA총영사관과 4.29폭동 범교포 재해대책위원회 성금분과관리위(위원장 하기한)로부터 전달받은 본국성금 4백45만달러에 대해 22일 상오

성금분과위의 인출 정지요청으로 은행측이 이를 동결시켜 성금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성금배분 절차무시” 교회협의회 유감표명 -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항구)는 22일 상오8시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성금 7백만달

러 를 배분함에 있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폭력 및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일부 교포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23일: “성금, 열흘내 배분” 피해자협, 본국80%-미주모금등 5백50만불, 영사관 서 피해대책위 성금전달과정 적절한 절차무시 책임문제 따를 듯. 한 인폭동 피해자협의회 이정 대표등 관계자 5명은 21일 하오 총영사관 으로부터 전달받은 본국 성금 4백45만달러중 80%와 미주 모금분 2백 여만 달러등 5백50여만달러를 10일 이내 피해자들에게 공동 분배할 계 회이라고 밝혔다.

23일: 미주성금 총 4,752,571불 공인회계사협, 7개 기관 접수내역 감사결과 발표. 라디오코리아 감사지연. 7개 한인폭동피해성금 접수기관의 성금 접수 내역을 감사해온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회장 최상봉)는 21일

하오 6시 한국회관에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6개 언론사(한국 일보. 중앙일보. 라디오코리아. 미주한인방송. KTE. 미주한인복음

방송)와 법교포 4.29피해대책복구위원회에 지난 6 월15일까지 접수된 성금내역을 조사한 공인회계사협회 감사위원회9위 원장 조용직)는

이날 중간발표를 통해, 은행이자수입 1천4백52달러를 포함한 약정액 5백27만8천6백30달러중 미수금 52만 6천59달러를 제외한 4백45만2천

5백71달러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3일: 피해자들에게 말기는 수밖에 없다(사설).-오늘 이시간 LA에서 또다시 폭동이 일어난다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교포들이 자신의 저금통을 깨고 성금을 낼까 의심스럽다. 성금을 둘러싼 추태에 모두 실망했기 때문이다. 이제 성금문제를 결론 지을 때 가 왔다고 본다. 어제까지는 피해자를 어떻게 돕는 것이 이상적이냐가 주제였지만 지금은 피해자 를 돕는 일보다 LA한인커뮤니티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 어제까지는 성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가 논의대상

이었으나 지금은 성금을 둘러싼 말썽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의 현실 적인 문제가 시급해졌다. 더 이상 이상론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23일: 성금전달“원인무효”-공인회계사협, 피해자협 강제로 받아내 인정할 수 없어. 「기금운영위원회」도 성명발표-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9회장 최상봉)는 21일 폭동성금이 피해자협회측에 전달된 데 대해 긴급성명 을 발표, 폭력으로 간주되는 농성 시위로써 강제로 성금을 받아낸 것 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이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24일: 특별사설 - 성금문제 아직도 길은 있다. LA 한인사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하나는 성금전달을

둘러싼 옥신각신 이고 다른 하나는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의 의

언론기관 성금처리 감사에서 한 라디오 방송국에 관한 부분이다.

24일: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②“기부금 분배권은 모금단체에”- “ LA시조례를 알아본다. 모금 전 시 주무부서 허가취득 필수, 기부내역. 회계기록 반

드시 남겨야. 기탁자 조건명시 땀 타 목적 사용 못해.

24일: 재해신고센터 타운등 3곳 문닫아 - 4.29폭동이후 각종 피해자 지원
사 업을 위해 운영돼 오던 재해신청서 접수처 3곳이 24을 문을 닫는다.

24일: 성적부진 흑인학생지도 프로그램 - 한인커뮤니티 지원요청. 한.흑관
계 가 표면상 나타난 것보다는 우호적이라는 설문조사를 내 주목을 끈 바
있는 국제문화연합(ICU)이 한 흑이 함께 참여하는 흑인청소년 교 육 프
그램을 고안,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24일: 성금분배 한인이미지 훼손. 커뮤니티 대책시급. 연방재무부 비밀경
호 대, 공관농성수사.... 미 언론서도 보도. -본국 성금수표관련 소송비화
우려. LA폭동 본국성금 4백45만5백78달러12센트짜리 수표가 4.29폭동
한인 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에 전달되자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한 인사
회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성금전달 과정에서 벌어진 농성사태에 대하여 연
방 재무부산하 비밀경호대(US Secret Service)까지 수사에 나서고 있어
한인사회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커뮤니티 차원의 대책 이 시급히 요청되
고 있다.

25일: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③ “피해자 공정한 성금분배 싸고 「균등」
「차 등」 딜레마 - 피해액산정. 부적격자선별등 신중. 「공익사용20%」 도
각계의견 수렴을. 4.29폭동 한인피해자들을 위해 모금된 미주, 본국구 호
성금의 총액 9백여만달러는 LA폭동피해주민을 위한 연방정부의 무 상보
조 지급액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중 폭동직후 피해자들의 긴급보
조금 형식으로 2백만달러가 이미 지급돼 현재 잔여성금은 7백 여만달러다.

25일: 대한적십자사 접수 2차 성금. 본국서 발뭉쳐. - 총영사관“물리적 집
단 행동 재발 시 법적 대응” 피해자협-은행등 내주 본격조치예상.

25일: 「라디오....」 허위. 왜곡보도 계속 - 라디오....방송은 23일 이어 24
일 상오뉴스 보도에서도 계속 본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왜곡보도를 하
여 한인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라디오....」 보도는 자체보도의 왜곡사
실을 은폐하고 본보 사실보도를 허위로 비방하고 있음이 관계 당국과의 문
의해서 낱낱이 밝혀졌다.

25일: 24일까지 성금동결관련 「조치」 없으면. 피해자협 제소 - 100불 시
험 인출, 지급불가통보 가주의한은행 감독국에 제소.

25일: 태평양화학성금 오기 수정통보 받고도 “라디오, 고의 비방방송”-
대한적십자사, 공문 통해 9만불 착오 수정

25일: 하위원장 사퇴서 수리 성금관리위 -4.29 피해대책 복구위원회 산하
성 금관리위원회는 23일 하오7시 강남회관에서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하기한 위원장이 제출한 사퇴서를 수리하는 한편 한인 피해자협의회 로
넘어간 4백45만여달러의 수표는 이관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성금을 성금관리위원회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27일: 성금분쟁 조정국면으로 - 본국. 미 적십자사 분배 주체등 중재. 미
적 십자측 양현승목사 직접개입 조속분배 강조 “더 이상 불미 없게 서로
한발씩 양보”

28일: 30대 한인여성 피살 :관계청산“요구시비 남자 칼에 찔려 - 지난 26일
하오9시30분께 한인타운 400 S. Oxford Ave.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이 아

파트 308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여인 영선임씨(35)가 30대 초 반 한인 남성의 칼에 맞아 숨졌다.

28일: 유동한시 기소취하 될 듯 - 검찰, 폭동시 도움받은 백인증언위해 예심 연기

28일: 성금 어떻게 써야하나④ -“커뮤니티 기금조성 저리용자” 「유대인 연합 심의회」의 교훈. 별도성금없이 커뮤니티기금 활용 년50만달러 모금 「심의회」서 관리

28일: 한.흑.백인.히스패닉 - 기독교인 인종화합 축제개최. 오는 8월 15.16일 LA 집 길리언스팍서 각 커뮤니티 성가대 등 출연... 매장임대도

28일: 3자 공동관리 방법등 성금분배중재안 모색. 대한적십자 윤석인 부장 피해자협 의견청취. 이정회장 “관리위 관여 반대”

28일: 「4.29 폭동 아시안비즈니스 피해」 -한2,300. 중262. 필리핀25. 일 10개 -피해액수도 한인이 거의 90%차지. LA에 본부를 두고있는 「신요도 USA」 마케팅 회사가 조사,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29폭동으로 인해 한인 경영비즈니스 2천3백개, 중국인 경영 비즈니스 2백62개, 일본인 경영 비즈니스 10개, 피리핀인 경영 비즈니스 25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폭동피해 액수는 한인 4억달러, 중국인 5천 3백55만달러, 일본인 3백27만2천달러, 필리핀 72만5천달러 등으로 집계 되었다고 신요도 마케팅사는 발표했다. 한인타운에서 피해를 입은 업체는 3백34개 업소에 총 5천5백10만달러의 재산피해를 낸 반면 일본, 중국타운을 비롯한 아시아계 커뮤니티 「타운」에 자리잡은 업소들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거나 경미한 피해만 입어 대조를 이루었다.

29일: 성금 분쟁 극적타결-피해자협 구좌 관리위로 이관통합 피해자에 분배 이정-전수웅-윤석인-양현승씨 합의. 분배위 구성 1인 2천5백여불 균 등 지급. 이날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성금통합은 현재 피해자협의회 구좌에 있는 본국성금 4백50만달러중 205를 제외한 3백60만달러를 성금관리위원회 구좌(현재 교포모금성금 2백10만달러 입금)로 다시 이관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이정.전수웅.윤석인.향현승씨등 4인이 공동관리할 성금분배위원회를 구성, 성금관리위원회로 통합 될 총 5 백70만달러를 2천3백여 한인피해자에게 균등분배할 방침이다. 피해자 협의회가 보관하고 있는 본국성금의 20%인 90만달러는 차후 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쳐 시를 상대로한 법정소송비용, 피해자를 위한 각종 봉사사업, 한인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인종화합 노력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것을 잠정 합의했다.

29일: 4인 분배위, 총영사관등 연쇄접촉-「성금타결」원칙합의 지난 27일 구성된 4인 성금분배 공동위원회는 28일 정오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분배공동위구성과 성금분배에 대한 합의사항을 정식 추진받기로 했다. 분배 공동위원회는 이날 상오 10시부터 변승국부총영사, 박종기영사, 하기환 전 성금관리위원장과의 연쇄접촉을 통해 관계자들로부터 분배공동위의 합의내용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29일: 폭동피해 철거건물 입찰. 하청 정보제공.- 「LA 커뮤니티 파트너쉽」매주 수요일

29일: 할린즈양 보상금 두 동생에게만 분배 - “아버지는 자격없다” 판결.
LA 수피리어 코트는 라타샤 할린즈양 가족이 두손자씨측으로부터 받은

30만달러의 보상금을 할린즈의 아버지 애코프 할린즈에게 분배해
줄 수 없다고 28일 판결했다.

29일: 아파트 피살 영 순임씨 뒷얘기 “폭동충격 신경과민이 화근” - 전재산
없고 작은일에도 쉽게 흥분 보상시위 앞장... 주변사람들 눈시울

29일 성금처리 합심촉구. 총영사관 발표문 - LA총영사관(총영사 박종상)
은 교착상태에 빠진 본국성금 처리에 관한 발표문을 냈다. 총영사관측은
이 발표문에서 성금 선용문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 혼미를 거듭
함에 유감을 표시하고 이 문제가 커뮤니티 각계의 합심하에 법정 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전 교민에게
당부했다.

30일: 성금합의」 하룻만에 파기 - 관리위원회의, 4자합의 추진실패.수표서
명 권있는 하기환씨가 반대.지난 27일 성금분배 4인 공동위원회가 합의 했
던 피해자협의회와 성금관리위원회의 통합 성금지급 결정이 하 루만에 파
기됐다. 성금관리위원회는 28일 정오 비공개전체회의를 통 해 전날 윤석인
대한적십자사 사회봉사부장, 전수용 성금관리위원회 임시 위원장, 이정
피해자협의회회장, 양현승목사등 4명에 의해 합의 된 3가지 사항을 추진
하려 했으나 전날 결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하 기환 전 위원장이 성금분배
위원회로 2백10만달러를 이관토록 규정한 성금 이관동의서에 서명치 않
음으로써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30일: 일자리 아직 태부족 - LA재건위 발족후 1만개 창출불구 9만여개 더
필요.

30일: 피해상인협, 회의장난입 - 피해스와밋상인협회 임원식회장이 전수
용 성금관리위원회 임시위원장의 멍살을 잡고 있다. 28일 정오 총영사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금관리위원회 비공개회의 도중 폭동피해식품 상
인협회 및 스와밋피해자협의회회원 20여명이 성금관리위원회 회의장 에 난
입,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이 있었다. (사진)

30일: 두씨판결 비난발언 한흑갈등심화 부인(라이너 카운티검사장) - 아이
라 라이너 LA카운티 검사장은 29일 한인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라
타 샤 할린즈양을 숨지게 한 두손자씨에 대한 판결과 이에 따른 한.흑갈 등
이 4.29폭동에서 한인 피해를 확대시킨 한 요인이 된 것이 사실 이 지만 자
신이 두씨 판결과 관련해 한 발언이나 조처는 한.흑갈등을 더 악화시키지
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30일: 폭력은 안된다. 성금분배 둘러싼 완력행사 개탄. - 30일자 본보 조간
신 문 1면 머릿기사에 나란히 실린 두장의 사진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왼쪽 컬러사진은 폭동 피해식품상협회 서정준 회장등 관계
자들이 본국에서 파견된 윤석인 대한적십자 사회봉사부장에게 손가락질
을 하면서 무엇인가 항의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흑백사진은 피 해스와밋 상
인협회 임원식 회장이 전수용 성금관리위원회 임시위원장 의 멍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멍살을 잡힌 전수용씨가 입 가에 띠고 있는 미소의
의미는 겸연쩍다는 것 뿐 일까. 4.29폭동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폭

력을 휘두르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본국에서 성금을 거두어 보내준 동포들이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인들이 이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30일: 성금, 결국 법원으로. -가주외은, 관리위. 피해자협의견 엇갈려 공탁. 윤석인 부장 중재포기 귀국... 관리위 공개회견도 무산. 가주외환은행은 지난 28일 하오 4시30분 가주외은이 가지고 있던 4백50여만달러의 성금을 LA법원에 공탁시킨 것으로 밝혀져 4.29폭동성금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31일: 한인 폭동후유증 심리치료 돕는다. 컬버시티 「디디허시 정신건강센터」 CCM요법 통해 불안. 충격 집중상담. - 컬버시티 일원 아시안주 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온 디디허시(Didi Hersch) 커뮤니티 정신건강센터(4760 S. Sepulveda)가 폭동으로 정신 불안을 겪고 있는 한인 피해자들에게 희소식이 될만한 심리치료방법을 소개했다.

31일: SBA 1억 2천만불 융자 FEMA 보조금 2억불 LA폭동 정부지원집계 - 미 연방 비상재해관리청이 폭동피해자들의 재해신고를 위해 캠프 트랜싯 센터(307 Tamarind Ave. Compton)와 카타리나-6가의 서비스센터에서 월-금요일 하오6-10시에 융자신청서 작성등 무료 워킹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주. 지방 정부당국은 LA 폭동피해 복구와 관련, 29일 현재 총 2억달러에 달하는 재해 지원금을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LA시청 앞 데모는 잘 한 일이다 (사설)

31일: LA동부 해병전우회(회장 김창웅)창립총회가 25일 하오 7시30분 한국 마켓 파킹장에서 70여명의 회원들을 비롯한 1백50여명의 한인들이 지켜본 가운데 열렸다.

31일: 성금분배 합의. 전체 성금 통합 관리위에 입금. 공익기금 100만불 제외 피해자에 배분. 전수웅-이정씨등 관리위 8명 서명. 난항을 거듭하던 폭동 피해성금 분배 문제가 29일 하오 강남회관에서 열린 성금관리위 원회 회의에서 다시 합의됐다. 하오 7시 10분부터 3시간에 걸쳐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전수웅 임시위원장, 이정 피해자협의회장, 최상봉 공인 회계사협회장 등 8명의 성금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성금관리위원회의 성금잔액 2백10만달러와 피해자협의회가 본국적십자사로부터 영사관을 통해 전해받은 성금 4백50만달러를 성금관리위원회 구좌인 「한미 구호기금(Korean-American Relief Fund)」에 통합, 입금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3개항의 결사항을 발표했다.

1992년 8월

1일: 성금분배안 구체화. 관리위, 합의사항 확인 법원공탁 곧 해제요청

부상자 5천. 일반2천5백불 지급. 성금관리위원회는 30일 모임을 갖고 법원에 공탁된 본국성금 4백45만5백27달러12센트를 「한미구호기금(Korean-American Relief Fund)」으로 통합, 피해자들에게 2천5백달러씩 균분한다는 전날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성금관리위원회에서 1차 지급했던 5백달러의 생계보조비를 수령해간 피해자명단을 기본으로 성금을 분배하되 사망자인 고 이재성군에게는 1만달러를, 부상자들에게는 5천달러씩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일 : 오늘의 논평- 2세들은 가버릴 것인가. 겨우찾은 아이덴티티, 실망시키는 커뮤니티(권정희 편집위원)

5일 : 고소취하 적극논의 관리위, 당사자들 접촉 - 본국에서 온 성금 4백 50 만달러는 가주외환은행측이 법원에 성금을 공탁하면서 성금관리위원 측과 피해자협의회,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양쪽이 고소를 취하해야만 성금을 법원에서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5일 : 한인단체장들 성명, 성금 원만 해결 촉구

5일 : 피해한인- 정부 중재 진땀.(연방법무부 커뮤니티관계부 스티브 톰인 터뷰) 시청앞시위 “쓰레기투척사건” 무마때 가장 곤욕, 한인 폭동피해자들이 벌이는 시위 현장마다 연방법무부 커뮤니티관계부 (Community Relations Service)의 중국인 4세 스티브 톰을 만날 수 있다. 한인피해자들이 시청 앞에서 20일동안 시위를 벌일 때 경찰의 강제 해산이나 무력 충돌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CRS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5일 : 소송취하 지연 성금분배 난관 - 4.29 폭동한인피해자협의회 (회장 이정)가 성금 지불정지와 관련해 지난 24일 가주외환은행(은행장 김종 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때문에 29일 성금관리위원회 및 은행측과 합의했던 폭동피해 성금분배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있다.

5일 : 흑인 랩가수 또 한인악평, 와틀리, 잡지사와 인터뷰서 “돈만안다” - 젊은 팬을 많이 갖고 있는 흑인 랩 가수 조디 와틀리가 최근 한 잡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을 경멸하고 코리아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발언을 해 폭동이후 가뜰이나 불편한 한. 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6일 : 뉴욕 라이프재단은 4일 하오 1시30분 한미연합회(KAC)회의실에서 한 미연합회(회장 게리 김)에 한인 폭동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50만 달러중 1차분 25만달러를 전달했다.

6일 : “성금, 관리위 이관 논의” 이정회장회견, 외은상대 소취하 밝혀 - 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는 4일 하오3시 협의회 사무실에서 성금분배의 최대 장애물인 소송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가주외환은행(행 장 김종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6일 : 피해자협 성금인출 - 관리위 합의서 근거 법원서 돌려 받아 - LA수 피 리어법원에 공탁했던 폭동피해성금 4백50여만달러가 법원의 결정으로 폭동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에 의해 4일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 “성금, 6일 관리위로” 피해자협 - 13인 성금관리위원중에 한명인 피해자협의회 이정회장은 회의에서 「 피해자협회구좌에 있는 성금을 6일 성금관리위 구좌로 이관하겠다」 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 30일 성금 관리위가 합의한 사항에 번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양측이 변호사 입회하에 법적효력을 갖는 합의를 작성, 서명해야 한다」 는 조건을 제시했다.

7일 : 폭동 1백일 맞아 돌아보는 한미구호봉사센터 - “빈곤층 생필품 지급 창 구로 정착” 하루평균 3백50여명에 서비스, 교회단체, 미식품사등 기부 줄이어

8일 : 내생애 최고의 봉사 3개월 - 우리들의 삶, 가주고용개발국 취업담당관 헬렌 임씨, 자신의 가게 약탈당하자 “다 가져가라”개방 미 매스컴 통 큰

한인상인으로 소개된 1.5세. 타운방문 부시 면전서 구호문제등 실행요구도.

8일: 코리아타운. 사우스센트럴등 “연방 방법시범지로” - 1천9백만불 우선 지원, 「위드&시드」 프로 재발 방지 위한 각종시책도.

8일: 성금배분창구 양분 위기 - 피해자협, 까다로운 이관조건 내걸어.

8일: 「성금이관」 여론분노 - 관리위 “2천5백불씩 분배, 수혜4백여명뿐” 피해협“변호사비 인정등 또 조건, 이관능장.

8일: 성금 첫 분배 - 성금관리위 부상자 14명, 생계곤란자 18명, 이재성군 유족등에 지급, 7일 스와밋, 8일 리커.마켓, 10일 기타 피해자접수

8일: LA시 상대 보상소송 위해 - 피해자협, 변호사 선임. 본국성금중 1백만 불 소송비용 사용계획.

8일: 피해자협. 관리위 성금분배싸고 갈팡질팡

9일: “한국 살기 좋다” 역 이민 급증, 작년 국적 회복자 87년 3배 달해, 8일 법무부와 외무부 관련부처에 의하면 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돌아와 영주 귀국한 역이주자는 지난 87년 3천3백1명, 88년 4천7백34명, 89년 6천6백85명, 91년 7천2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주권 을 받아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87년에 3만4천7백98명, 89년에 2만2백 72명, 91년에 1만7천4백33명으로 매년 3천 내지 5천명씩 줄어들고 있다.

11일: 성금이관 지연 분배차질 - 피해자협 추가조건 고집, 창구 양분 혼선

11일: 독자기고(이해명)-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자는

11일: “교계, 김창준 후보 적극 후원” - 10일 조찬기도 모금행사. 투표 참여 앞장.

11일: LA 폭동지역 긴급재건 안 - 이견. 분류로 난항. 카운티정부 “엄청난 규모 재산세보조 불가”, 주택소유주 “개발업자만 이익편중”비난도

11일: 피해지역 업소 재오픈. 융자금 상환 연기 제안. PTFLAR, 연방지원금 15개월이상

12일: 리커영업 규제 움직임 활발, 샌퍼낸도시 신규면허 잠정중단. 조건부 허가 시조례입안. 기존 개수도 제한 취급업소 줄이기로.

12일: “성금은 이정씨 개인돈 아니다.” - 피해 스와밋협, 성금관리위로 즉시 이관 촉구

12일: 성금이관 계속 외면- 피해자협, 이번엔 관리위 개편요구

12일: 웨스턴 인테내셔널 보험사 - 폭동클레임 타격 법정관리

12일: 폭동피해 재기안간힘, 자체 스와밋 공사한창(웨스토모어랜드-워싱턴코너, 워싱턴 디스카운트)

12일: LA외곽 신축인도어 스와밋들. 폭동피해 상인 적극유치 - 폰태나. 파코 이마등 임대료 인하 홍보나서

13일: “배고픔없는 사랑의 공동체” 범인종 구호단체 곧 발족 - 빠르면 이달 중 한-흑교계 주도, 백인자선기구등 참여, 저소득주민 자립지원도.

13일: 「웨스턴」 보험 문달아. 폭동관련 보상청구 쇄도로 - 한인등 LA폭동 지역내 영세상인등을 상대로 재해보험을 팔아왔던 헌팅턴비치의 웨스턴 인터내셔널 보험회사가 쇄도하는 폭동관련 보험금 청구로 재정이 더욱 악화, 11일 문을 닫았다.

13일: 공고 - 본 성금 관리위원회에서는 피해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성금을 1인당 \$2,500씩 균등하게 지불토록 결정하고 지난8월6일 사망자 및 부상자를 시작으로 성금지급을 시작하였으며 8월7일부터 10일까지 성금지급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피해자 협의회 이정씨가 보관중인 450만불을 성금관리위원회로 이관을 전제로 한 것 이나 이정씨는 오늘까지도 약속을 파기하고 성금을 이관치 않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 1992년 8월 13일(목요일) 오후 3시, 장소: 동양선교교회 4층 교육관, 주최: 성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상봉. 1992년 8월 11일

13일: 노태우 대통령 LA방문 취소. 9월 UN연설뒤 귀국 “성금갈등 원인인 듯”(본국정부관계자 밝혀)

13일: 데니 구타 흑인3명 25일 재판 - 폭동시 다른 12명 폭행. 강탈혐의. 유 죄 확정되면 최저 15년형.

13일: 독자 기고 “폭동피해 소송과 변호사 선임”(강민호 토랜스 거주)

14일: 성금 관리위원장 살해 협박 시달려 - 성금분규 전화 잇달아

14일: 폭동피해 교인 1,052명에 교회협, 성금 1백불씩 전달.

14일: 폭동피해 접수센터 - 15일 업무마감.

14일: 피해자협 격렬시위 - “총영사관. 하기환씨 성금분배 방해”주장. 한남체 인서 이틀째 ... 몸싸움 부상자 발생. 폭동피해자들에 대한 성금분배를 하기환(전 성금관리위원장)과 LA총영사관측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 하는 폭동피해자 1백여명이 11일 한남체인앞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12일 상오 11시부터는 총영사관앞, 하오 5시30분부터는 하씨가 운영 하는 한남체인 앞에서 시위, 이 과정에서 1명 이상이 다쳤다.

14일: 성금분배늑장. 창구중복 반발.-다업종 피해자협 결정. 주유소. 세탁업 주축

16일: “마켓출입 방해해선 안돼” - 한남체인 앞 피해자협 시위 법원서 제한 명령

16일: 성금지급동경 가처분신청 기각 - 피해식품상협등 요청 “타당성없다”판 시(LA수피리어코트)

17일: 4.29폭동으로 파괴 또는 전소 피해를 입은 업소의 영업허가 재발급 및 수속절차에 관한 무료 법률세미나가 15일 상오 10시 60여명의 피해한인들과 아시아태평양 법률센터, 한미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렸다.

17일: 성금분쟁 한인사회 위신실추 - 교계 개입. 중재 나서

19일: 관리위도 성금 분배키로-긴급모임서 이정씨의 위원자격 박탈결의

19일: “폭동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고..” 타운 지키다 어이없는 희생고 이재성군. 부상자 스토리- LA타임스 사건 진상. 근황보도.

“라디오 오보 듣고 달려갔다 폭도오인 피격”

20일: 두손자씨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로 흑인단체들의 반대 시위 등 곤경에 처해있던 조이스 칼린 판사가 그간의 고통과 심장을 한인 커뮤니티에 털어냈다. 18일 로타리클럽 모임서 인사 (사진).

20일: 원로목사 중심 성금중재위 구성 - 감정대립해소책, 이정-하기환씨

퇴진 권고

21일: 한인추정 승객 2명의 총격 받고 한인 택시운전자 피살.

21일: 사실 - “분노를 느낀다” 피해자협의회 회장과 성금 관리위원회의 전. 현직 회장이 피땀 흘려 이룬 한인 커뮤니티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데 대해 그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대표성이나 정통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들이 「내가 성금을 나누어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맹목적 영웅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23일: 성금관리회장 사표 - 최상보씨 단일화 불발유감.

24일: 폭동피해 한인업소에 뉴욕시 융자지원계획

25일: 폭동피해자 절반이상 정부보조금신청 기각; FEMA 절차 간소화 주장 불구 아시안은 30%미만 수혜 자격

28일: 김수환추기경, 폭동피해 타운 돌아봐, 사랑의 힘으로 치유돼야

28일: 주로 1.5세 2세들로 구성된 10개 한인단체 연합체 추진, 봉사활동 내실 다진다. 내주 결성선언... 커뮤니티 구심점으로

29일: 송산없는 송사 재고 마땅 - 피해주협의 정부상대 소송 1백만불 허비 우려 성금분배 마무리 “철저한 감사 의혹해소”여론

29일: 폭동피해, 한인입장 적극 밝혀야 - 웹스터자문단 공청회 한국어통역도. (웹스터자문단 한인코디네이터 박인애변호사)

29일: “킹 구타사건 평결보다 인종갈등-불황이 주범. 한국어등 4개국어로 4.29폭동원인 여론조사. 신속진압 실패, 경찰 무능력 탓.

29일: 킹구타 연방재판 내년 2월로 연기

31일: 사단법인 4. 29폭동한인피해자 협의회(성명서) - 진실 짓밟는 성금관리위 더 이상 신뢰 못한다. 동포성금 농락하지말고 하루속히 넘겨달라.. 거짓이 진실을 짓밟고 있다. 가짜 피해자가 5천달러를 보상받았다. 성금관리위원회가 영사관의 씨나리오에 맹종하며 가짜 피해자에 게도 동포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제멋대로 분배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들 4.29폭동한인피해자협의회는 진실을 짓밟아 온 영사관주동의 성금관리위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결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2년8월10일).

1992년 9월

1일 : 폭동진원지 사우스센트럴 LA 한인타운 - 보험료 폭등 및 가입거부 사태 한인업소들 골탕

1일 : 폭동진원지 사우스센트럴LA. 한인타운-보험료 폭등. 가입거부 사태 “또 다른 폭동우려” 한인업소들 골탕

1일 : 4. 29 폭동피해자 후유증 치료 위한 목회상담세미나 큰 호응.

중앙루터교회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 방법론 제시.

1일 : 김수환 추기경 30일 특별강론. LA한인사회 개탄 - “평화대행진때도 숨 사라지고 이기 물질주의 팽배 인간애 실천했는지 반성... 모든 신자 복귀 동참을”

2일; 성금 낸 사람들 분노 - LA폭동성금회수협의회 발기.. 눈길 끌어

3일 : 1992년 4월 소요사태에 대한 「로스엔젤레스 경찰의 대응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공고」 주최: 로스엔젤레스시 경찰 위원회 특별 고문

3일 : 피해업주만 성금분배 폭동실직자외면 부당 - 피해자들 단체추진

3일 : “나는 저런 코리안이 아니오” 그것하나 해결 못하는 한인사회 능력이 문제...

4일 : 피해자협 소 취하 거부 외환은, 공탁해제 안 해. 성금타결 담보.

4일 : LA카운티 인종간 주민의식 폭동이후 달라진게 없다(UCLA 설문조사) 생활환경. 치안. 경제전반 부정적시각 여전. 아사아계, 대흑인우월감등 갈등요인 내적.

4일 : 폭동피해 정부보조 한인요구 추가수렴. 1.5세 봉사단체장들.

4일 : 8월중 2백63명 피살. LA카운티 사상최악.

4일 : “이정”이라는 사람 - 폭동와중에 가장 많이 회자, 본인 설명에 의하면.

4일 : 폭동보상 청구준비 법률연합체 발족. 타운서 한달 간 대규모 피해보상 청구서 확보작업.

5일 : 성금분배 누락자 공익기금서 지급. 성관위. 피해자협 선 지급조건.

5일 : 성금지급 및 지급예정자 명단 공고

5일 : 재무보고서 - 4.29폭동 한인 피해자 협의회.

5일 : 리커 재 오픈 결정연기 - LA도시계획위 사우스 LA주민 반대거세.

5일 : 발언 - 사우스 LA에서의 성공담

5일 : 성금관리위 ‘배분마감’ -100만불 남겨 공익사업 계획. 성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철)는 3일 동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던 성금 2백10만달러가운데 1백8만9천달러를 8월한달 동안 4백16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원회는 성금 중 1백만달러를 타운발전을 위한 공익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관리위원회의 성금배분은 사실상 마감됐다.

6일 : 성금관리 위장직 박철씨 수락거부.

6일 : “피해자협 감사 안말았다” - 오주앤더슨 & 래더 “피해자협 주장 사실과 달라”

10일: 폭동피해자 추가성금 지급. 피해자협, 1차 누락된 3백여명 대상.

10일: 한인권리옹호법인 곧 발족- 비영리단체 이미 등록.. 커뮤니티 힘결집 전국적 조직 추진.

11일: 폭동피해소송 10월29일 마감. 아태법률센터등 세미나통해 법률자문.

11일: 교회협 성금 분배 마무리 잔액 2만불 인종화합 사용.

11일: 피해자협 사무실서 시위 - 성금 조속지급요구

12일: 식품상협 폭동성금 분배 . 부상자 월터박씨 3천불등 2만1천여불 지급 키로.

12일: 코리아타운 -사우스센트럴LA. -폭동피해업소 40%폐업. 보험없어 복구도 못해.

13일: 피해자협 남은성금 120만불 행방 의혹, 2차 마감후 수표 500매 공중떠... 이정회장 소재 불명.

14일: 정부제소 준비착수 - 법률연합체, 폭동피해보상청구 자원봉사센터 개설

15일: 폭동 실직자모임 발족 “고용주들에게만 성금분배 부당” 밝혀

16일: 수표500매 뒤늦게 찾아 - 피해자협 성금의혹 해소 증거제시

16일: 폭동피해 재해기금 지급 일단중단

17일: 금지를 지키자 (유의영 - 시상)

17일: “성금마무리 잘해야” -상공이사회. 철저한 감사로 의혹해소.

17일: 웨스턴 인터내셔널 보험사 폐쇄.-폭동피해 보상신청 서둘러야. 30일 내 타 보험 가입해야 중도해약 피해 막아.

19일: 잔여성금 배분 진통

20일: 4. 29 폭동후 흑인 불만-소외감 심화. -로드니 킹 구타경관의 무죄 방 면에 대해 흑인은 96%, 히스패닉은 79%, 아시안76%, 백인65%가 잘 못 이라고 지적했다.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미 주류사회의 인 종편견 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백인들은 인종편 견등에 별관 심을 두지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흑인의 67.5%가 4. 29폭 동을 로드니 킹 재판의 항의표시라고 답한 반면 아시안은 42.9%, 히 스페닉은 38.75%, 백 인은 37.4%가 항의였다고 답했다. 현법률제도, 80%가 “차별 많다” 아시안 들의 대흑인감정악화 겹쳐. 백인들 폭동영 향력 별로 못느껴“경제-생활한 경 악화”공동인식. 사회문제 근본적 치 유없인 폭동재발 상존 가능성.

20일: UCLA 사회학과 여론조사결과. “발생전후 24주간의 인종별 의식구 조변 화”-이같은 사실은 UCLA 사회학과 여론조사팀이 4.29폭동을 전후한 24주간동안 1천8백69명을 전화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지난 3일자 LA 타임스와 CNS 통신은 백인들의 입장에서 폭동이 LA주민들의 의 식구조와 생활패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도해 소수민족 입장에서 재조 명해 본다.

21일: 공탁성금 계속묶여 - 피해자협-외한은 맞소송... 법원서 반환안돼.

21일: 성금 2백명 추가분배-피해자협, 1차탈락자 재심사 토대로. 본국성금 4 백50만달러중 3백50여만달러를 지난달 26일까지 1천4백여 피해자에게 2천5백달러씩 분배한 피해자협의회(회장 이정)는 1차 성금분배 대상 에서 제외된 피해신청자 4백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실시해 온 재심사 를 1일 마친 후 수혜대상자 2백여명을 선정, 늦어도 8일까 지 피해자협의 회가 보유하고 있는 성금잔여분 70만달러를 일괄 분배 할 계획이다.

23일: LA폭동으로 피해 입은 리커스토어나 스와밋등의 영업재개를 제한하 는 LA시의회의 조례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연방하원이 영 업장소 이전에 제약을 두는 소기업융자 (SBA Loan)관련 개정안을 심 사하고 있어 비즈니스 복구에 노력하는 한인상인들이 진퇴양안의 상황에 당면하게 됐다.

27일: 한인식품상업계의 구매력 증진과 대형마켓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 가주 한미식품상협회가 마련한 제2회 식품 및 장비전시회가 한국 및 미 국 식품제소 공급업체 90여개가 참석한 가운데 25-26일 애나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한미 관계자 5백여명 참석 - 공동구매 좋은 계기, 식품상 협회 1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려

28일: 본국 TV극 교포사회 왜곡: KBS특집드라마 [아메리카의 꿈] 흑인계 를 범죄집단 시, 한흑갈등 증폭우려, 한인사회 또 다시 파문

28일: 폭동상처 씻고 기필코 재기, 한미식품상협 창립10주년 기념식 성황, 애 나하임 메리웃호텔서 1천여명 참가, 한흑 우수학생 12명에 장학금도

전달

30일: 한. 흑 협동 곧 결실 - 폭동전소 한인사핑물 「1호」 복원 순조. 버몬트-밴체스터코너 10월말게 완공.

1992년 10월

2일: 지난 10년동안 흑인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한흑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동양선교교회 흑인전도사 채웅, 한 흑 관계 개선방안 일한, 플러신학원 학생 마리오 볼덴 지난 9월부터 매주일 중 고등부 지도

3일: 폭동시 약탈범 막아준 이웃주민 보답 한인 에스키모 냉동회사가 샌타페 지역의 흑인교회 신축에 필요한 냉방시설공사를 무료로 제공

4일: 김영태씨 승소계기로 본 「앞날」 “추태 반신창이” 4대 한인회 - 4차례 송사, 폭력, 금품매수, 2명이 회장 주장.- 봉사는 뒷전, 특하면 “재판 하자”... 앙금남아 신뢰회복 미지수. 서로 한인회장이라고 주장하는 김 영태씨와 이조원씨가 한 대 동시사퇴에 합의했다가 이를 번복, 5대 한인회는 다시 법정소송에 말려 공석이 되고 말았다. 4대 한인회는 회장선거때부터 금전매수로 시작해 폭력정관개정. 4차례의 법정소송 등 크고 작은 분규가 잇달아 역대 한인회중 가장 잡음 많은 한인회로 한인사회의 외면을 당했다.

6일: 김대실, 크리스틴 최, 일레인 김씨 아시안 단체로부터 지원금 받아
[한인여성 눈에 비친 LA폭동]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11일: 코리아타운 (유의영 - 시상)

11일: 나성영락교회가 한흑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흑인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25일 상오 9시 굿세퍼드 침례교회 (담임 조셉 그리핀 목사)에서 열렸다.

15일: 억울한 체포 기소취하 - 유동환씨 폭동때 남돋다 곤욕 주위도움 4개월 법정투쟁 승리

16일: 가게운영 흑인에 일임-한흑화합 일조

16일: “리커, 타업종전환 정부지원을” 사우스La 아시안 피해자들 공청회철폐 요구

16일: 폭동피해 정부제소 한인 9백여명 참여

17일: 사우스LA 대부분 피해한인 리커점. 재 영업 사실상 좌절. 2년전 조닝 변경으로 상업지역 변경 불가 통보 받아.

17일: 성금문제등 집중추궁(총영사관 국정감사) -피해자 「담보대출」 왜커뮤니티에 안알렸나 본국에 5천만불 융자지원 요청, 거절당해

21일: 폭동복구 프로그램 「위드&시드」 반발 사우스LA 주민공청회

21일: LA폭동 밀도있게 묘사 단편 「블랙조」 호평받아(뱅크버거주어운씨)

22일: 샌타애나 상공회의소 산하 한인상공인 위원회, 매년 10명 1인당 250불 씩 히스패닉 대상 장학금 추진, 20일 샌타애나센추리고교에서 1차 장학금 수여식

23일: LA경찰, 치안확보 역부족. 웨스터위 지적불구 현인력. 예산으론 개혁 기대못해 - LA폭동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위리엄 웨스터)가 폭동원인 조사보고서(The City in Crisis)를 통해 범죄 퇴치를 위한 경찰 순찰

력 증가배치의 필요성을 재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LA경찰국 (LAPD)의 인력과 예산은 이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폭동조사 특별위원회 윌리엄 웨스터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LAPD 순찰대는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대 때마다 순찰차를 타는 경찰관은 LA시 전체에 3 백50명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

23일: 「웨스터 보고서」의 충격과 경고 - 경찰과 시당국의 무능. 무관심. 무 계획등이 필요이상의 시민의 희생을 불러왔으며 그중에서도 이민그룹 인 한인커뮤니티가 폭도들의 분풀이 대상이된 점이다. 폭동이 일어났는데도 시장이나 경찰국장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마비되었음이 밝혀졌고 특히 게이츠국장의 오만한 자 존심이 폭동의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나 있다. 웨스터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보고서가 LA에서 다시한번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LA시와 경찰국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탁상공론만 펴고 있을 때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웨스터 보고서는 이를 위해 경찰이 순찰을 대폭 늘이고, 커뮤니티와 접촉을 활발히 다질 것과 통신장비를 보강하고 시당국과 긴밀한 협조아래 폭동대비 지침서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폭동피해자 지원 안내서 유나이티드웨이 배포 - 유나이티드 웨이는 폭동피해 한인들의 복구와 관련, 이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보가 수록된 안내책자를 배포한다.

24일: LA한국노인상조회는 23일 상오10시30분 연례 회원 친교의 날 및 9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인 및 흑인대학생 1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4일: 피해보상 청구 자원봉사센터 폭동피해 클레임 2천여건 - 사례별 분류 시. 카운티. 주 정부에 제소키로

25일: 피해자협회보, 「도박. 성금착복」 내용- 총영사관 강경 대응

27일: 한. 흑교인 함께 예배. 동양선교교회-트리니티교회 상호방문 정례화 성가대. 목회자교환 커뮤니티 화합분위기 조성.

27일: “타운 간접피해 더 심각” - 월스트리트저널 폭동후 6개월 한인업소 매출 40% 줄어

27일: LA시 경찰상대 폭동피해복구- 1천여 한인 보상신청. 26일 마감. 타 커뮤니티 포함. 총 2천여건 접수

28일: “재해보상신청 마감연장 심사기준도 완화되어야” 가주.하와이.플로리다 주 피해자들 연합 FEMA에 탄원서

29일: LA 5대 본국은행 피해교민 금융지원 5,357만불 제공- 대출기간연장. 이자율 인하 등 혜택

29일: 폭동피해 한인 리커 조속한 영업재개 희망

29일: “4. 29폭동때 방화 유도”혐의 마켓 한인부부체포 - LA카운티검찰서 기소 증거는 아직 안 밝혀.

30일: 한인부부 방화 유도혐의 검찰 기소내용 “의문” -조스마켓관련 인정 신 문서 무죄주장.

30일: 세계적 대기업 “LA재건 투자타진” 혼다-코카콜라등 5백개사 10억불
규 모. 위버로스 “고용창출등 4개분야 재건안 마련”

1992년11월

9일 : 4.29폭동피해 지역의 재건을 돕기 위한 정부합동민원봉사실 (3407
W. 6th St) 개설축하기념식이 지난 7일 하오 봉사실이 위치한 도로에서
개최됐다. 존 페라로 LA시의장과 네이트 홀든시의원등 내외인사와 주민
등 2백여명 참석

10일: 한인 리커상 흑인3인조 총격 받고 피살, 8일 하오 7시께, 벨플라워
소 재 박병원씨 소유 리커스토어

10일: LA타임스 보도: 한국초청, 장학기금, 체육대회 등 교류, 접촉 활발.
4.29폭동 이후 한 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사우스센트럴 지역내 한흑 커뮤
니티 간 관계개선의 노력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노력 으로 바뀌
고 있다고 LA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11일: 제1회 한흑 친선골프대회성황

12일: 다민족 청소년 예술교류 - Korean Youth and Community Center
(KYCC) 적극 참여 갈등해소 모색

16일: 4.29폭동으로 불탔던 리커스토어들이 재 오픈되는 것에 항의하는 촛
불 시위가 14일 밤 사우스센트럴 LA에서 열렸다. LA시의원 리타 월터 스
주동. (사진)

16일: 지난 14일 상오 10시50분께 와츠지역에 위치한 한인운영 빌리지 마
킷 (10507 S. Compton Ave.)에 3인조 흑인강도가 들어 이 마킷 업주 이 성
하씨를 깨진 병으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났다.

16일: 뉴욕타임스 15일 보도: LA폭동후 인종간 분리 심화 지적. 각 집단
자 기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입지신장에만 노력,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한인 각기 다른 입장

17일: LA 타임스 특집: LA폭동발생 6개월이 지난 현재 LA지역은 인종간의
갈등과 투쟁의 표상처럼 인식돼 가고 있고 각 인종간의 고립주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6일자로 보
도 했다.

17일: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리커상들의 영업재개가 논란이 되고 있
는 가운데 사우스 센트럴 지역내 리커 영업재개에 관한 보고서가 18일 발
표됐다. “타 지역보다 10배 많아 범죄 온상화” 업소이주, 업종전환 등 20
개 규제방안 제시, 한흑의견 별지로 첨부, 실현여부 미지수, 톰 브래들리
LA시장에게 제출

17일: 지난 4.29폭동 당시 심한 약탈피해를 입고 문을 닫았던 한인운영 게
이 지 스와밋 (939 W. gage Ave)이 지난 14일 이웃주민들과 고객들을 초
대, 재 개장을 기념한 바비큐파티를 열고 새로운 출발을 자축했다. 흑인
한인 입주, 흑인 경비원 고용. (사진)

20일: 한인타운주민들 자구책마련 범죄퇴치 도보행진: 샌마리노와 켄모어
애 비뉴 일대에 사는 주민 30여명 18일 하오 7시 범죄퇴치 촉구 행진

21일: LA타임스 분석: 한인폭동피해자 정부제소 물증확보 어려워 승소 장
애

21일: 사우스센트럴 LA에서 가장 큰 한인경영 스와밋중의 하나인 아발론 스 와밋 (1300 South Avalon Blvd)이 폭동으로 피해를 입은지 6개월여 만 인 31일 영업을 다시 시작했다. (사진)

21일: 클린턴 한인상가 방문: 빌 클린턴 대통령 당선자 18일 워싱턴 DC 조 지아애비뉴 5200번지 NW 일대의 상가를 찾아 한인경영업소 등 방문 (사진)

21일: LA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4.29폭동으로 전소된 사우스센트럴 LA 소재 한인경영 트로잔리커스토어 및 알타디나 데어리에 대한 영업 재개를 허락했다. 폭동으로 전소된 LA 소재 한인 리커스토어 가운데 처음. 3대1의 표결로 영업재개 승인.

25일: 한국의 이상옥외무부 장관은 LA총영사관 영사활동비 10억원이 국회에 서 통과되었는데 이것은 LA교민사회의 단체활동 지원 등에 쓰일것 이 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LA한인회와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서 부지회등 단체는 LA폭동지원금 4백억원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었다.

27일: 라타샤 할린즈 살해사건으로 집행유예중인 두순자씨 한국여행 목적 으로 보호감찰조건 변경신청, 미 주요언론들 24일 할린즈양 유족 및 흑 인 커뮤니티의 반발과 연방수사의 진행사실 일제히 보도, 두순자씨측 변경신청 하루만에 철회. 연방법무부 인권국은 지난 24일 그렉 톰슨 LA카운티 부검사장 앞으로 부낸 팩스에서 “두씨사건이 연방법에 저 폭되는 바가 없는지 수사중이며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해외여행허가를 유보하도록 담당 란스 이토판사에 요청해 달라”고 밝혔다.

27일: LA시의회는 25일 사우스센트럴, 와츠, 샌피드로, 베니스,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할리웃, 노스 할리웃, 밴나이스, 파노라마 시티 등지를 폭동재해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승인했다. 이 차터가 주정부의 승인 을 받을 경우 이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들어서면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미국내 주요도시의 지도급 흑인목사 및 교수, 경찰서장, 기자등 흑인 52명, 한국인 수행목사 67명 미국 평화목사회 (회장 헨리 홍목사)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회장 이성택목사) 초청으로 12월1 - 10일까지 열흘간 한국방문. 한국문화 이해, 한흑갈등 예방 목적 (사진)

1992년 12월

1일 : LA 폭동소재 어린이 연극 “유리창 ... 엄마 왜 LA가 불타고 있나요 (Windows Mama, Why Is LA Burning?)”(작가 드완 스미스 포티어)이 4 - 6일, 11 - 13일까지 LA 다운타운 소재 LATC 톰 브래들리극장 (512 S. Spring St.)에서 공연된다. (사진)

1일 : 로드니 킹 구타여파, 사망 58명, 재산피해 7억1천만불, 한인커뮤니티 단합과 재도약 위한 교훈 남겨

3일 : 흑인들의 이웃이 되자 - 조태연 (에세이)

3일 : 한인 정치력 신장 최고의 해: 이민사상 처음 한인 6명 미 정계 진출, 폭동 후 실의에 빠진 커뮤니티 활력소. 김창준 연방 하원의원 당선, 정호영 가든 글로브 시의원 당선, 임용근 오리건주 상원의원 당선,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 당선, 재키양 하와이주 하원의원 당선,
미미 린다 김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당선.

3일 : 뉴욕 데일리 뉴스 특집 한인폭동피해자 조한나 곱씨 딱한 생활 소개.
곱씨는 폭동발생 첫날 자신이 장사를 하고 있던 스와맛이 폭도들에 의해
전소 당해 재산과 희망을 함께 잃어버렸다. 폭동 이후 곱씨는 렌트를 내지
못해 벨플라워 소재 아파트에서 쫓겨났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딸 수경(18)
양은 현재 곱씨의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 등 이산가족 신세가 됐다.

4일 : 한국출신 화교 줄리 사씨(40)가 지난 1일 시의원 선거직을 갖고 4년
임기의 풀러튼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4일 : 실업수당 끊겨 생계 막막, 위로운 노인 - 장애인 많아 - 자선단체들
훈훈한 연말위해 “작은 정성” 기다려

5일 : 폭동충격 후유증 가실 줄 몰라, 5백여 한인 정신건강상담 - 총 1천4
백 1건 달해, Asian Pacific Counseling and Treatment Center

5일 : 금년은 한인이민사상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해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최악의 해. LA지역은 불경기에다 뜻하지 않은 폭동, 사상 최악으로
불리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겹쳐 한인경제를 망들게 했다.

5일 : LA도시계획국 3일 사우스센트럴 소재 한인리커 리스마켓 재개승인.
정씨의 리스마켓은 지난 4월29일 약탈을 당하고 30일 방화돼 60만
달러의 재산 손실을 냈다.

6일 : 나성영락교회와 흑인교회인 홀맨 연합감리교회 (3320 W. Adams)는
한흑관계 개선을 위해 13일 홀맨교회에서 그리고 20일 나성영락교회 에
서 연합합창단 메시아공연을 갖기로 했다.

8일 : 격동 '92: 피살한인 20명, 45%(9건)가 동족에 희생, 마켓이나
리커스토어에서 일어난 사건 20%(4건).

8일 : 미 NCC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소속 목회자 1백여명 양
커뮤니티 이해 위한 2박3일 “함께 걷는 일 (Walking in the Way)”
세미나 지난 6일 하오 7시 다운타운 소재의 힐튼 타워 호텔에서 열려, LA
이어 전국 주요도시 순회, 인종 갈등 해소 앞장

11일: 아트 토레스 가주 상원의원이 9일 4.29폭동과 관련한 주 상원
폭동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 오픈 규제 와 리커 타 지역
이전 건의가 골자.

14일: 한인화가 6명 흑인밀집지역 와츠타워 아트센터(1727 E. 107th St.)
에서 12월11일부터 1월5일까지 한 흑 교류의 일환으로 전시회 마련

16일: LA 사우스센트럴지역에 위치한 퍼스트 AME처치 (2270 Harvard
Blvd.)에서 인종간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커뮤니티포럼 14일 상오
9시부터 하오1시까지 4시간 마이클 잭슨의 사회로 진행, KABC
토크라디오 (AM 790)를 통해 생중계, First AME Church 주최

18일: 한-흑연맹 해체: 한 흑 양 커뮤니티의 유대증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한-흑연맹 (Black-Korean Alliance)이 구성원간의 이해대립과 조직활동 의
미비 등을 이유로 지난 11월17일 공식해체 됐음이 밝혀졌다.

22일: 격동 '92: 위상 바뀌는 한인단체, 2세대 커뮤니티 대변 활발, 폭동 계
기 1세대 역할 급격히 위축. 92년은 특히 2세가 주축이 된 단체들이

한인사회의 주도자로서 두각을 나타낸 한해라고 볼 수 있다.

22일: 폭동피해자 41% 원상복구 어려울 것 (봉사단체연합조사) - 재정 여
전 히 어렵다 85%; 임시변통으로 그친 SBA, FEMA 지원정책

23일: 21일 하오 5시35분 이스트LA 소재 한인경영 밀크 데일리 마켓
((3976 E. First St.)에 히스패닉 강도가 들어 주인 김승호씨를 총으로 쏘
숨지게 했다.

23일: 한인사업체 매매 작년보다 20%나 줄어 ... 1천8백여 건 불과, 마켓
334 건 가장 많고 리커 255건, 세탁소 235건.

25일: AP통신 23일 소개: 폭동으로 80만달러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
렸 고 5발의 총상을 입어 몸까지 불편한 형편의 정진무씨 흑인이웃의 따 뜻
한 격려로 재기신념 북돋워

27일: 시조닝국 (Office of Zoning Administration)은 25일 주민불평 접수로
폭동으로 전소된 한인 리커상 Bloom's Liquor (3901 S. Normandie Ave.)
와 77 Liquor (7727 South Western Ave.)의 주류판매 금지 여 부를 심사하
는 공청회를 열었다.

28일: 코리아타운 교민회는 27일 4.29폭동 때 흑인 갱들에 의해 포위돼 폭
행 을 당하고 사경을 헤매던 한인부부를 구사일생으로 구해 준 Grant
AME Church (10435 S. Central Ave.)의 대니얼 핑카드 목사에게
커뮤니티를 대신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1993년 1월

1일 : 한인청소년회관(KYCC)은 새해를 맞아 한-흑 청년 40명이 참여하는
낙시(3일)와 , 농구경기관람(10일)하는 행사를 마련하였다.

5일 : 구랍 29일 하오 8시40분께 팜스프링스 부근 캐시드럴시 소재 한인
경영 777리커스토어에 침입한 히스패닉 무장강도가 주인 브랜든
민씨가 쓴 총에 머리를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5일 : 한인 은행들 사상 첫 뒷걸음, 8개 한인은행 92년새 7.6% 감소

7일 :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때 (유의영 - 시상)

9일 : 한인리커 3곳 7일 LA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영업재개 허가

9일 : 강도. 쯔도독에 시달리다 폭동 된서리 맞은 한인 샵터. 「리커스토
어」 전망과 문제점- 폭동때 피해입은 리커스토어의 재개여부를 묻는 공
청 회마다 흑인주민들이 몰려와 반대발언을 퍼붓는다. 강.절도가 횡행
하 는 사우스 센트럴의 경우 그렇잖아도 리스크 많은 비즈니스인 리커
스 토어가 날로 심해지는 주민단체의 보이콧 캠페인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9일 : “서로의 상처 달래자” 한흑 깊은 열정. 흑인교계 지도자 방한 동행취
재 기 - 지난해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미 흑인 교계지도 자
방한단의 단장 와이엇 T. 워커목사(뉴욕시 할렘 가나안침례교회 담임)는
서울을 떠나던 날 김포공항에서 이번 여행의 결과로 「희망」 을 안고 돌아
간다고 말했다. 13개주, 22개시, 17개 교단 출신의 목사, 교수,시장, 경찰
서장, 기자등 50명의 흑인과 20명의 재미 한인 목사 및 교회지도자들로 구
성.

16일: 폭동피해 한인 업종선정 안내. KAC, SBA-정부지역미원실 공동 설

명 회. LA폭동이후 업종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한인들을 위해 정부 지역 민원실(NOC)과 SBA가 20일 하오 2시한미연합회(KAC. 614 S.. Havard Blvd. #111)사무실에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현재 폭동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폭동피해자로 SBA론을 신청한 한인 피해자 중 70%가량 이 론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중 30%는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20%는 업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나머지 50%는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흑인역사. 문화 한글로 소개. 양 커뮤니티 이해 폭 넓힌다. 장태한. 유 의영교수 폭동원인. 대책등도 재조명- 흑인사회를 해부해 이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가치 「흑인은 누구인가」는 장태한 교수 (UC 리버사이드.소수민족학)가 집필, 한국(발행 한국경제신문사)에 는 이 달 말게 미주지역엔 3월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유의영 교수 (칼스테이트.사회학)는 한.흑 관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토 대로 Korean-Black Encounter: Toward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란 영문서적을 8월 게 펴낼 계획이다.

28일: 인종간의 벽을 허물고 밝은 미래사회를 꾸려나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퍼포먼스 <화산섬> (기획 이익태)이 3월27일 하오 8시 한 폭동 피해지역 (111-120 Vermont Ave)에서 펼쳐질 예정. LA시 문화국 <LA 재해 복구기금> 5천달러 지원으로 기획 (사진)

28일: <LA 재건위원회>의 버나드 킨세이 공동의장은 26일 4.29폭동으로 인해 2백억달러의 손실을 입은 남가주 지역에 지금까지 3억달러의 투자약속이 있었을 뿐 이 지역 재건을 위한 대기업의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28일: 4.29폭동당시 백인트럭운전자 레지널드 데니를 구타한 흑인 용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3월에 시작되고 로드니 킹 구타 경찰관 4명에 대한 연방 민권법 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이 다음주부터 개시되는 것과 관련, 사우스 센트럴 LA지역에 긴장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LA시는 다각적 예방책을 강구하고 있다. LAPD, 곳곳 경찰배치, 진압장비 구입비등 요청

29일: 사우스센트럴과 리커스토어 (사설)

30일: 폭동 때 전소된 한인마켓(51st Produce Market)에 비영리단체인 지역주택서비스(Neighborhood Housing Service)에서 영업재개 위해 10만달러 용자

1993년 2월

3일 : LA폭동 그후 9개월 - 재건은 없고 재발 불씨만 (주간타임지 특집)

4일 : 로드니 킹 구타 백인경찰관에 대한 연방민권재판이 3일부터 시작되면서 흑인폭동재발에 대한 우려가 4.29폭동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한인을 포함, LA주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고 LA타임스지가 보도했다.

5일 : LA 시의회는 폭동피해 리커스토어가 업종을 바꿔 비즈니스를 재건할 경우 업소부지 당 건평을 2배로 늘려주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5일 : 해병전우회, 공수특전단동지회, 한인청년단, 한인경비원협회와 미국

범죄추방 크리스천운동본부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 3일 옥스퍼드
팔레스호텔에 모여 평시엔 방법, 비상 땐 자경활동을 목적으로 한
인 봉사단 (Korean Community Service Organization)이란 연합체 구성